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21일)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명' 복구된다

조계종 · 국토부, 재설치 최종 합의 확인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이 고속도로 표지판에 정식 안내된다. 철거로 논란이 됐던 사찰 표지도 전면 재설치 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계종이 요구한 관련 협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역시 국토부가 제안한 개선 방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사찰 안내 명칭을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상 지역 명소나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공사는 이후 고속도로 보조표지판 68개를 철거했다. 이 중 66개가 사찰 안내표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철거 철회' 와 '관련 지침 개정' 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종단의 공식 입장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세계문화유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조계종과 국토부는 지난한 협상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은 3월 14일 열린 국토부의 '도로표지 효율적 안내방안 공청회' 서 확인됐다. 이날 국토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고속도로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7년 불거진 사찰 안내표지판 철거 논란이 최근 해소된 뒤 관계부처가 표지판 개선안을 강구하며 내놓은 성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를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공청회는 최종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선 의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조계종과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진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입장을 조율했다. 국토부는 리조트, 스키장, 놀이시설 등 일반 관광지들은 안내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유산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 미비하다는 불교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그해 12월 7일, 국토부는 사찰표지 철거를 중단하고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문신 국토부 도로운영과 사무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상당 수가 불교문화재로 비중이 크다. 불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끝에 조계종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소통 결과 무엇이 달라지나

도로표지 관리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조계종이 소통을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는 무엇일까. △철거한 보조표지판 재설치 △기존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신규 등재된 7곳 산사 안내 추가 △사찰 · 문화재 영문표기 통일 등 세 가지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등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 위해 지침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며 "향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철거된 사찰 안내표지판은 모두 복구될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표지 개선안 일부.

국토부 공청회서 개선안 공개
세계문화유산 산사 안내 추가
산사명칭 영문표기 기준 정립
"각계 의견 수렴해 최종 확정"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세계유산인 석굴암 ·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까지 도로표지판 공식 안내대상에 포함됐다.

동일지명이지만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했던 문화재명도 통일될 예정이다. 불국사의 경우 'Bulguksa' 'Bulguksa Temple' 등 각기 다른 영문표기법이 혼재돼 있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이 정립됨에 따라 불국사 표기는 'Bulguksa Temple' 로 일원화된다.

도로표지 안내에 누락된 원인이기도 한 지침의 제정 · 변경 시기는 놓쳤지만, 조계종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관리지침 개정이란 이번 결과는 작지만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종단은 관련 법령이나 정부와의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불교관련법 제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D–47, 봉축 준비 'START'
부처님오신날이 두 달 여 남은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는 봉축등 달기가 한창이다. 형형색색으로 장엄된 도량은 부처님이 계신 연화장세계 같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건 봉축등에서 나오는 밝은 빛처럼,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이 땅에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해 본다. **사진=박재완 기자**

올해 봉축 키워드 '전통 · 화합 · 평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이 2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 각계가 봉축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봉축주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가족' 그리고 '전통' '화합' 등을 키워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통 먼저 부처님오신날의 꽃,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연등행렬이 5월 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와 불자들이 연꽃등, 초롱등, 팔모등, 수박등 등 총 100여 종류의 행렬등을 들고 서울 종로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인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연등회 1부 행사로 전통풍습인 느티떡 나눔을 설행한다. 또 연등회와 짝을 이뤄 행하는 호기놀이도 함께 진행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어 5월 12일 오후 4시 송상현광장에서 무차만발공양도 진행한다.

화합 **서울 조계사**는 '우리 모두 하나되어' 를 주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는 4월 6일 장애인대법회, 4월 20일 영유아수기법회 '부처님과의 첫만남' , 4월 21일 유아 · 어린이 · 청소년연합수계법회 '우리도부처님같이' , 4월 21일 3대가 행복한 가족노래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연다. 연등회가 펼쳐지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조계사 신도회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회를 맞은 난치병어린이 3000배 철야정진을 전국사찰로 확대 시행한다. 4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조

호기놀이 등 풍속 전승
장애인 · 어르신 행사 추진
남북 불교계 봉축점등식도

계사 뿐만 아니라 전국사찰 어디서나 1배당 100원씩 난치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경우 문화대축전을 연다. 4월 14일 오후 10시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중앙문화축전을 시작으로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문화제가 열린다. 이번 지역문화제는 지난해와 달리 시민참여형으로 펼쳐진다. 또 4월 13일부터 4월 27일 15일간 나눔문화캠페인 일환으로 전국거리모금이 300개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울 봉은사는 사찰 내에서 특별전시전을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4월 27일 전통등 전시회를 시작으로, 5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도자기 특별전시전이 열린다. 또 5월 11일에는 템플문화한마당이, 12일에는 미륵전에서 봉축 특별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전북봉축위는 4월 12일 4월 12일 전주역 광장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북어린이 큰 잔치,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을 연다. 특히 올해는 4월 30일 20년에 걸쳐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미륵사지 석탑 앞에서 봉축점등식을 개최한다.

평화 남북 불교계의 공동행사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평양시내 봉축점등식' 도 추진 중이다.

연등회 사무국장 선나 스님은 "이번 봉축주간 펼쳐지는 전통 계승과 창달, 그리고 나눔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창종 50주년 맞아 재도약 박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간담회서

“창종 반세기를 맞아 밀교 홍포와 재도약의 중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교총지종 제19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사진>는 3월 20일 서울 역삼동 불교총지종 통리원에서 재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선 정사는 “올해는 창종 48년으로 창종 50년을 2년 앞두고 있다. 이에 내년 초에 총지종 50년사 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승단과 신도가 함께 손잡고 선대 스승님들의 창종 정신과 반세기 종단 역사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인선 정사는 “종단사 발간을 통한 회고와 성찰은 급속히 변화해 가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불교적 사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큰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종 50년사 발간 추진
수계제도 4단계로 늘려
강원 · 제주에 불사 계획
국제 불자대회 유치도

재가불교 비전 수립

총지종은 우선 제19대 집행부 종책과제를 △창종 50주년 기념 책 발간 및 출판기념회 △종헌 종법 개정 △신규 교화지 개척 및 사원 재정비 △승직자 심화교육 강화 등으로 정했다.

이 중 종헌종법 개정에 대해 인선 정사는 “지난 18대 집행부 시절부터 통리원장 산하에 종헌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종단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시대 상황과 상충되는 조항들을 개정하려 작업 중에 있다”며 “이 일은 종단 입법 기구인 종회의원들의 검토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10월 종회에는 새로운 개정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계획을 피력했다.

이어 인선 정사는 △정각사 득락전 헌공 불사 △법성사 헌공 불사 △제10회 국제 재가불자 대회 △제13회 경로잔치 △총지종 교도 수계법회 △제30회 청소년 어린이 법회(바른 인성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강화 등의 핵심 사업도 발표했다.

이 자리서 인선 정사는 새롭게 진행되는 불사에 불상 점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다만 우리 종단은 밀교 본연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사 추진이 목표다. 5월말에 완공 예정인 부산 대표 사찰 정각사가 그 좋은 예이다. 본당 2층에 건립된 득락전에는 총지종 사원 중 유일하게 불상을 모셔 전통성을 강조했다”며 “추후 기도 도량을 조성한다면 조계종 불상과 다른 밀교 양식의 비로자나불을 조성하는 등 특색을 갖춘 불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총지종은 사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도 헌공 불사를 해 전국 주요 도시에 포교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에 10회째를 맞는 국제 재가불자 대회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인선 정사는 “이 행사는 총지종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란 취지로 재가불교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1회 대회서 5회째까지는 우리나라서, 그 이후는 스페인,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을 거쳐 2020년 제10회 대회는 다시 우리나라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승직자 처우 개선 노력

총지종은 수계 제도도 대폭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줄곧 1회로 그치던 수계 행사를 올해부터는 4단계로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총지종은 7년 이상 신도에게만 수계를 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수계 대법회부터는 개선된 4단계에 따라 종도들의 가사 등을 구분해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등 가사만 봐도 수행과 신행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지종은 2017년까지 진행한 통일음악회제를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부산 정각사와 단위사찰서 종도들의 화합을 위한 문화 행사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인선 정사는 “종단 수익 사업을 강화시켜 현재 100명 정도 유지되는 승직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기본교육기관 조정, 대승적 합의를”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불사 10년 성과와 과제 (하)

출가자 120명 선으로 급감
교육원 다양한 사업 추진
성과 無… 정책 전환 필요
기본교육기관 조정도 난항

출가절벽 도래, 이후 대책을
‘일당백’ 출가자 양성 절실
종단 차원 TF 구성 등 고민
연속성 있는 정책도 요구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기본교육부터 재교육, 전문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한계를 내비친 부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출가 부분이다. 조계종 한 해 출가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조계종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532명이었던 출가자 수는 20년이 지난 2018년 122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57명이 출가하며 한 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졌고, 2년 만에 150명 선도 붕괴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계종 교육원도 ‘출가 진흥 원년의 해(2016)’를 선포하며 각종 제도 정비 · 장려 · 홍보사업들을 펼쳐왔다. 실제 청년출가학교, 산사청춘캠프들은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종책들은 가시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조계종 교육원은 “출가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출가상담을 하고 있으며, 출가상담전화 개설 · 출가지도법사 제도 운영 등 출가 인식을 확장해 출가문화를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원은 교구 출가지도법사 지원과 출가상담실 운영 등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 스님들의 출가 진흥 독려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출가자 감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종책을 고민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그간 전문가들이 종단 차원의 T/F 구성들을 요구해왔고, 앞선 총무원장 스님들 역시 주요사업계획으로 ‘출가 T/F’ 구성을 내놨지만 정작 임기 내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출가는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계종단의 향후 존립에 대한 사안이지만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종단적 T/F정도는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에 맞는 유연한 출가제도도 필요하다”며 “동남아시아 불교의 경우처럼 단기출가를 통해 수행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가자 감소로 인한 ‘출가 절벽 시대’의 도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들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기본교육기관 조정’이다. 이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조계종 교육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교육기관 14개 사찰승가대학 중 종법이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정원 10인을 충족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총 학인 정원 40인을 채운 교육기관은 4곳이었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학년별 입학정원인 120명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 교육기관과 이를 운영하는 교구본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학인 수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교육기관 조정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지만 각 교육기관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다”며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논의를 하려 한다. 이를 통해 로드맵 작성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들 필요성은 알지만 당장은 부담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그래도 이제는 정말 대승적 토론 등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성 있는 승가교육 불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봉행되는 ‘교육불사 후원법회’도 이 같은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진광 스님은 “이제 승가교육의 큰 줄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승가교육은 연속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집행부 불신임, ‘제2분규’ 우려

원로회의,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

편백운 스님 “원천무효, 사회법 제소”



태고종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을 결의하는 모습.

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하고, 원로회의가 이를 인준했지만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원천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측 스님들의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벌어져 2015년 폭력사태에 이은 제2분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는 3월 2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요청한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안을 찬성 12표 · 반대 5표 ·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회의는 23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인준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태고종 종법에 따르면 원로회의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 인준이 가능하다.

약 1시간여 진행된 회의는 시작 전부터 아수라장이었다. 편백운 스님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원로 스님들에게 배포하려 했고, 반대 측은 이를 저지했다. 원로 스님들을 흔들지 말라는 게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 스님들은 고성과 욕설이 주고받았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며 원로 스님들도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태고종 중앙종회의 불신임과 원로회의 인준으로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 사상 첫 불신임된 총무원장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편백운 스님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불신임 관련 모든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원로회의에서도 편백운 스님은 “인준하면 분연히 일어나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태고종 사태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편백운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회 결의 자체가 법적 하자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로회의 결정 또한 원천 무효다.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거취를 결정할 수 없으며, 총무원장으로서 종무를 수행할 것을 천명한다. 제26대 집행부를 그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또한 “종단이나 종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편견에 사로잡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일부 종도들은 법적 대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사회법 제소를 시사했다.

한편,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이날 태고종의 현 상황에 대해 참회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안 회의 앞에 서 있는 것에 먼저 국민과 모든 불자들에게 깊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드린다”며 “태고종의 모든 종도들도 깊은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종단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새 단장 마친 미륵사지 일원 공개



새 단장을 마친 익산 미륵사지 일원. 사진 왼쪽이 최근 해체 보수를 마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오른쪽은 실물 복원 동탑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년 동안 해체 · 수리 진행한
미륵사지 석탑 23일부터 공개
오는 4월 30일 준공식 예정

미륵사지전시관, 박물관 확대
8월 준공… 2020년 3월 개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 일원이 새 단장과 정비를 마치고 그 위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 수리와 이를 위해 설치했던 가설시설물 철거, 석탑 주변 정비를 완료하고 3월 23일부터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일제강점기에 덧씌운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 · 수리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년까지 원래 남아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했다. 최근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말까지 그동안의 조사연구와 해체수리 과정을 기록한 수리보고서를 발간하면 미륵사지 석탑 관련 전체 사업은 완료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 과정은 일반에 공개해 관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으나, 수리를 마친 석탑의 모습은 가설시설물에 가려 있어 어떤 모습인지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이번 가설시설물 철거와 함께 20년 만에 완전한 모습의 미륵사지 석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준공식은 오는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준공식 날짜인 4월 30일은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미륵사지 해체를 결정한 날이며 미륵사지 석탑에 사리를 봉안한지 1380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준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 지도자들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정부 ·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불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익산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사업 홍보영상 시청, 기념사, 축사에 이어 석탑으로 이동해 석탑 가림막 제막의 순으로 진행된다. 준공식에 이어 금산사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법요식이 봉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3월부터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도립으로 운영되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지난 2015년 국립으로 전환됐고, 최근 새롭게 건립중인 박물관 개관에 맞춰 익산박물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기존 전시관 바로 앞에 새롭게 건립중인 익산박물관은 올해 8월 준공하며 연말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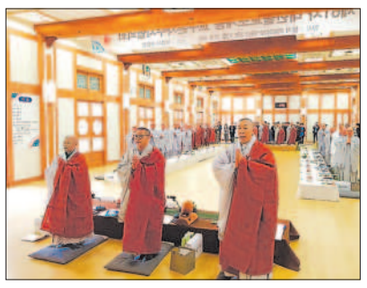
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사리내외호, 사리봉영기, 청동합 등)'를 비롯하여 국보 제123호 '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익산문화권의 주요유물 3만5000여 점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사적지 내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히든 뮤지엄(숨은 박물관)'으로 설계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상기 국립익산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익산박물관은 13번째 국립박물관"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익산문화권 대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 현안,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구례 화엄사서 61차 회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 마곡사 주지)는 3월 20일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종단 집행부에 요청했다.〈사진〉

화엄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회장 원경 스님, 부회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을 비롯해 각 지역 교구본사 주지 15명이 참석, △문화재구역입장료 관련 홍보물 준비 △문화재 보수정비 지침 개정 △출가자 현황 및 대책 △불교신도 감소 대응방안 △백만원력결집(백년대계본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덕문 스님은 문화재구역입장료 관련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법 개정 과정까지를 담은 홍보 책자 배포가 시급하다. 국민들은 물론 정부와 국회 등 기관에 모두 숙지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교구장 스님들도 "책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홍보물이 필요하다" "정책 자료집 등을 배포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서는 최근 출가자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절에 스님이 없다. 출가자가 1999년 532명에서 2018년 122명으로 줄었는데, 그동안 종단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다. 제도 개선 등 현실성 있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 스님 없인 사찰도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특히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시대와 동떨어진 출가 대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수행자는 산 속에서 참선하고 명상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출가 대책을 우리 스스로 먼저 대폭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군법사 출가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그 많은 군법사들이 출가를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인재 양성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각 부 · 실장 스님들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전국교구본주지협의회의는 5월 30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엄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백만원력불사' 내달 본격화

승려요양병원 · 계룡대영외법당 · 부다가야 사찰 건립

4월 17일 조계사서 선포식
한국불교 현안 과제로 설정
"불자들 신행 혁신 계획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백만원력불사의 청사진이 나왔다. 조계종은 승려요양병원과 계룡대 영외법당,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3대 과제로 불자들의 원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백만원력결집위원회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백만원력위는 백년대계본부 산하위원회로서 불자들의 신행 혁신과 보시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된 기구다. 원행 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장 취임 이후 불자들의 원력을 결집할 수 있는 주요 과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꾸준히 피력해왔다.

이에 백만원력위는 승려요양병원(승려노후복지) ·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과제로 설정, 불자들의 모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7일 부처님오신날 광화문 점등식에 앞서 오후 4시 조계사서 '백만원력결집모연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승려요양병원은 초고령화와 병고로 사찰에서 치료 · 간병이 어려운 스님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불사다. 2016년 기준 만65세 이상 스님 비율은 16.3%로 집계됐으며, 2024년에는 36.1%, 2034년에는 54.8%에 이를 것으로 조계종은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조계종 내에서는 승려노후복지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들은 종단차원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동국대의료원과 함께 승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300병상 · 1000평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을 계획 중이며,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립부지는 동국대 일산병원과 인접한 곳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 · 해 · 공 3군본부인 계룡대 영외법당은 군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백만원력결집으로 모연된 불자들의 정성을 보태는 불사다. 계룡대 인근 주택단지가 개발되는 상황에서 영내 법당을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은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센터 및 여행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자 추진된다. 부지선정, 행정절차, 공사방법 등은 구체화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백만원력불사는 기간이나 금액의 목표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을 제외한 전국 2000개 사찰에서 각각 50명이 동참하고, 이를 주위에 알려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연은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진행되며, CMS · 지로 ·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는다.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백만원력불사는 무엇보다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을 내 동참해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모연이 아닌 앞으로 불자들의 신행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이사 후보 덕문 · 대진 스님 추천

종관위, 110차 회의서… 자광 스님 후임으로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후임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성행, 이하 종관위)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0차 회의를 열고 임기만료를 앞둔 학교법인 승가학원 및 동국대 임원에 대한 후임 임원 복수 추천을 진행했다.

종관위는 오는 7월 20일로 임기 만료되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후임에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을 추천했으며, 3월 12일자로 사직한 동국대 감사 덕문 스님의 후임에는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과 초심호계위원 성화 스님을 추천했다.

그러나 자광 스님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지원 스님(前포교원장)의 후임은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보류했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6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교육이사 법산 스님의 후임에 법산 · 선응 스님(동국대 외래교수)을, 교육이사 해주 스님 후임에 해주 · 정덕 스님(동국대 교수)을, 교육이사 효탄 스님 후임에 본각(前 중앙승가대 교수) · 능인 스님(前 중앙승가대 교수)을 각각 추천했다.

또 일반 이사 정안 스님 후임에는 정안 · 현묵 스님(한국명선차인회 사무국장)을 추천했으며, 일반 감사 우하 스님 후임으로는 우하 · 유곡 스님(前 동학사 주지)을 추천했다.

한편,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스님들은 3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4차 임시회에서 가결을 거쳐 각각의 학교법인에 추천된다.

신성민 기자

봉화산 정토원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봉축행사

1959년 기해(己亥)년 4월 5일, 이때까지도 6.25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정치는 자유당독재, 사회는 무질서의 연속, 경제는 보릿고개를 못 넘기며 계속되는 배고픔,
전체가 메말라 허덕이던 시절! 이와 같은 폐허화를 보살펴야 할 불교계는 비구대처 정화분쟁에
휘말려 있을 무렵 동국대학교 불교학도 31명이 4대 개발(심신, 사회, 경제, 사상)을 상징하는
민족의 생존도구인 호미를 든 관음성상을 김해 진영 소재 봉화산 정상에 봉안케 되었습니다.
종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이 불사가 금년 4월 5일,
꼭 60주년이 되어 이를 기리고자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간이 허용되시면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축준비위원 일동 합장



행사진행 일정 및 장소

제1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 일시 : 2019년 3월 30일(토) 오후1시~6시 30분
-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관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

제2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
-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10시~11시
- 장소 : 봉화산 정상 호미 든 관음성상 제단
- 주관 : 봉화산정토원 신도회

제3차 행사 _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법회 및 '평화통일기념탑, 노인청소년문화 체험공원' 조성발의 설명회 후 오찬
- 일시 : 2019년 4월 5일 오전11시~12시
- 장소 : 봉화산 정토원 수광전 앞뜰
- 주관 : 봉축행사준비위원회



60년 전 1959년 당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추진위원 명단 31인
이봉구 김지견 이현종 신병구 황연갑 김해동 박경호 김백만 김광영 이종복 김정애 김기업 손영익 김주태 조재진 김남식 박완일
김인덕 이천호 김두성 최충열 이재옥 박동기 강창순 안영근 박광도 최병주 김학순 김영기 배종일 선진규

당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실무위원 명단
이융성 배한진 정극섭 나동영 심주종 지해식 이기용 김응조 김문길 한치훈 김기권 김삼현 주선응 김종민 박종대 최병식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봉축행사 준비위원회

고문 서의현 대성 혜총 홍파 법타 법륜 월인 덕일 윤여중 최성봉 이봉구 전영화 장봉호 김영태 안영근 정지찬 이규범 삼학
권기종 최규일 박중선 이일웅 오현근 서윤길 이민홍 송재운 김덕영 원정 이성곤

공동준비위원장 손안식 배조웅 이장명 이재형 이수홍 양승찬 전안오 황재연 황충익 권오현 김덕수 김영준 이영호 라동영 홍영춘
이상번 김형균 이융성 김남식 홍외순 김상규 김태진 박광도 최병주 최두식 김성권 정대헌 이봉춘 김영만 김형중 고영섭 권탄준
이성균 박상철 박 순 윤정관 신관호 양경술 장사덕 김종열 백선기 정권화 박경준 하재길 김보성 차혜숙 김형태 박종철 심관호

준비위원 법성 영공 등명 길상 법공 법연 선근 강기출 정수덕 허남준 김말분 승규봉 선기 선건 전준호 변철호 최향숙 선광율
선광용 최춘호 최민정 심미조 박영동 이종서 김남일 장 익 정인호 이학송 주보연 백경선 한영규 권재우 김동수 김봉규 김민우
김보과 이지석 박영빈 김용섭 허준도 강은숙 강정자 강주이 강차곤 강춘아 강홍열 고주연 곽정현 구영애 권장희 길은옥 김나현
김대진 김도원 김미숙 김미애 김범석 김상철 김선옥 김선자 김수복 김순옥 김영란 김영숙 김점덕 김정미 김정분 김점선 김지호
김종화 김지원 김태길 김현빈 김현주 김혜연 김호규 김호대 김희면 김향자 남은실 남현주 류봉용 목정자 박덕규 박도원 박명수
박미경 박명숙 박미선 박미자 박상희 박선태 박세환 박영남 박영록 박영숙 박영옥 박정숙 박재봉 박재영 박보환 박갑석 박창환
박흥환 박제문 박종복 박판덕 박창호 박태식 박한순 박현혜 박호동 박희자 방성영 방영진 배남희 배둘남 배미선 배수정 백월선
백정례 백정자 본행화 서경숙 서기동 서순길 서유경 선분희 선종순 성순옥 손강숙 손성숙 손수형 손태환 송진호 신경숙 신석기
신순자 신용암 신정숙 심도문 심영순 심재덕 안경식 안귀연 안영미 안영은 안오례 안홍태 양미란 양안나 양호진 엄정란 오명주
오순옥 오재람 오재진 오혜정 우영환 우정현 유미경 윤축외 이경진 이구대 이동건 이상만 이상필 이상협 이수남 이수련 서혜진
이순옥 이우재 이영선 이은선 이의직 이인자 이인호 선광현 이재선 이정란 이정자 이준규 이진식 이호덕 이희대 이희용 임장이
임준현 정귀련 정순진 장미애 장미연 장미옥 장수연 장순자 장은숙 장은실 장은주 장임순 전경자 전기병 전기연 전윤옥 전영숙
전영심 전유식 영 공 정석수 정숙이 정영애 정계자 정정옥 정진학 정형수 제효정 조규원 조영미 조은숙 류정길 주귀자 진옥주
차미승 최미혜 최민정 최병철 최양순 최영심 최영희 최옥순 최이숙 최성열
최정주 홍미화 홍강표 하명숙 한정자 최정인 홍경윤 황효진 정수미 윤충선
홍춘표 김용기 강용숙 권재인

협찬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관련 중앙 및 지방시민단체 일동

- 총괄실무책임 선진규(010-8864-7272)
김용표(010-8716-9308) 김해조(010-4241-0778)
김재엽(010-5212-4514) 연락 : (055)342-2991~2

“대행 선사, 독창적 수행관 보인 선지식”

대행선연구원 3월 16일 제3회 계절발표회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선연구원은 3월 16일 제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행선사의 수행관을 발표한 황금연 경희대 교수와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해 분석한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수행관과 관법 체계를 학술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3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계절발표회에서는 황금연 경희대 교수가 대행 선사의 수행관을 “독창적이고 어떤 굴레나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황금연 교수는 ‘대행 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연구’ 에서 대행 선사의 생애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수행관 · 화두관 등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대행 선사가 불문(佛門)에 인연을 맺은 것은 한암(1867~1951) 선사의 영향이 컸다. 대행 선사는 한암 선사에게 “곶감의 꼭지가 떨어져야 공부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참구하는 발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선사는 사찰의 꽉 짜인 생활과 강론에 회의를 느꼈고 홀로 산야를 돌며 수행을 했다. 깨달은 후에도 대행 선사는 선지식들과의 법거량보다는 전국 산천초목을 다니며 자연을 향해 법거량을 했다. 실제, 선사 자신도 “나는 경전이나 좌선 등에서 도리를 배운 게 아니고 서리 맞은 고추 하나 따는 데서 인과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황금연 교수는 “선사의 수행 전체를 통해보면 자연을 마주하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의심이 부단한 의정(疑情)의 힘을 얻고 그것이 의단화(疑團化)돼 참구해 나간 만큼 일정한 스승이 없다”면서 “일체 만상이 그의 스승이었으며, 심지어 그가 무학(無學)인 것도 스승이었다고 토로하는 것이 선사의 수행 특징”이라고 봤다.

또한 대행 선사가 보인 참선에 있어서 황금연 교수는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묵연한 수행”이라는 선사가 설한 참선의 정의에 주목했다.

이에 황금연 교수는 “대행 선사는 ‘자기 주인공 본성에 대한 믿음’, 즉 불성에 대한 믿음이 철저할 때 일상생활이 참선이 된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24시간 가운데 주인공을 잊을 때가 있어도 마음의 원동력을 체득해 지속적으로 수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학 전문 연구자들 참여
대행 선사 수행관 등 조명

선사, 만물을 스승삼아 수행
主人空 본성 대한 믿음 강조
“모든 것이 화두… 굴레 無”
대행선 관법 체계 분석 · 분류도

대행 선사의 화두관 역시 매우 독창적이다. 선사는 정형화된 화두공안을 새로운 화두로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에 황금연 교수는 “살아가는 자체가 화두고 참선”이라며 “사람에게 주인공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누구로부터 화두를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며, 그 화두를 통해 새로운 의문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행 선사의 일관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참선관과 수행관, 특히 화두관은 매우 독창적 · 독자적이며 기존의 어떤 굴레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선사의 가장 큰 특성은 경론의 언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경론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선 관법 체계에 대한 고찰’ 을 발표했다.

이상호 연구원은 논문에서 대행선 관법을 ‘3관법(觀法), 6관(觀), 11요(要), 7단(段), 3오(悟)’ 로 체계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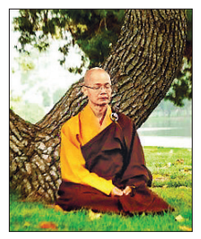
이상호 연구원은 “6관 수행법과 7단계를 거침과 동시에 세 번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대행선의 수증관”이라며 “이 같은 관법 체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각종 관법 수행과 함께 일상생활의 영위와 주인공 발현이라는 증명, 일체불이 및 나툼 등 세 번의 죽음과 깨달음은 분명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 논평자로는 동국대 명예교수 혜원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참여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넓게 펼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뤄지는 열띤 토론은 선사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스님 초청 불칠·선칠 집중수행

비로자나국제선원 3월 22~28일



미국 영화 스님 초청 불칠 선칠 7일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지우)은 3월 22일부터 28일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영화선사 특별초청 불칠 및 선칠 7일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위앙종 법맥 선화상인의 제자인 영화 스님<사진>은 1999년 만기악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고 대만에서 계율을 공부한 뒤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 2005년까지 은둔 수행을 했다.

영화 선사는 BLI(BodhiLight International)라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고 다양한 나이, 민족, 종교, 언어 배경의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편, ‘불칠’ 과 ‘선칠’ 은 사람이 변화하는 7일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수행법으로 불칠은 새벽 4시 능엄신주를 포함한 아침 예불로 시작해 아미타경, 아미타찬, 아미타불 염불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선칠은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앉기, 20분 걷기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다. (02)6012-1731

노덕현 기자

“기증등록자님, 처음 그 마음 지켜주세요”

생명나눔, 올해 첫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캠페인 전개



캠페인에 동참한 한양여대 학생들이 채혈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

“조혈모세포 기증은 헌혈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일종의 장기기증이기 때문이에요.”

3월 20일 서울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캠페인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2019년 첫 캠페인을 시작했다.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양여대 행원스퀘어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착한릴레이’ 는 대학생들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증희망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정환 생명나눔 차장은 “기증자 사망 후에 이식이 이뤄지는 장기기증과 달리, 기증자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유일하다”며 “기증방식도 예전보다 쉽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착한릴레이 캠페인을 알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등록서를 작성한 뒤 기증희망자가 채혈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채혈은 기증이 아닌 DNA타입 검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향후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는 일치자가 나타나면 최종 기증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박향규 생명나눔 실장은 “ ‘피를 만드는 어머니세포인 조혈모세포에 문제가 생긴 백혈병, 혈액암 환자들은 건강한 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 중 내가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2, 3만 명 중 1명 정도로 이식 가능한 일치자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혈모세포는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증등록자 수가 많아져야 생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착한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된 취지도 이 때문이다. 빠르면 6개월 안에 세포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기증 적합 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생명나눔의 설명이다.

최하림(도예과 3학년) 학생은 “등록을 하더라도 맞는 환자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참을 결심했다”며 “기증 이후 3주 내로 원상회복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증할 수 있도록 일치자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증의사를 낸 시점과 실제 기증이 시행되는 시점 차가 나다보니 사후관리가 핵심이다. 생명나눔은 이날 기증희망자들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마다 다이어리를 우편발송하고 다양한 SNS 이벤트를 하는 등 기증희망자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채혈을 끝낸 학생들은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을 했다는 표시로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였다.

최은비(니트패션디자인과 1학년) 학생은 “신분증에 붙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처음 낸 기증의사를 잊지 않고 생명을 구할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들었다”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 때문이라도 기증등록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착한릴레이 캠페인은 한양여대를 시작으로 대구지역 영남이공대(3월 25~26일), 영진전문대(3월 27일), 대구가톨릭대(3월 28일)로 이어진다. 또한 4월은 부산지역 신라대, 부경대, 동의대, 동아대, 동명대 등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다시 5월경 서울지역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불교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원 모집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이 잼버리 대회 참여를 위한 대원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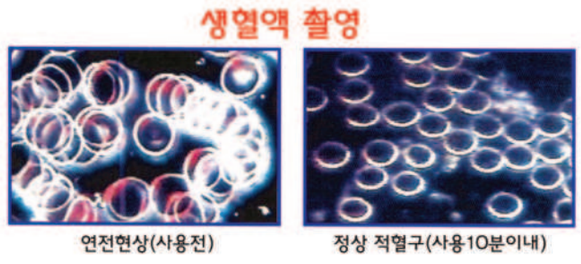
불교스카우트연맹은 2021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2023년 지구촌 170개국 청소년 5만명이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대원 조직화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 · 중 · 고 ·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대원을 모집한다.

대원이 되면 사찰연합캠프, 리더십 함양캠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참가, 신라화랑도캠프, 불교영어캠프, 미국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환경보전활동, 스키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포상 기회도 주어지며 활동경력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02)722-903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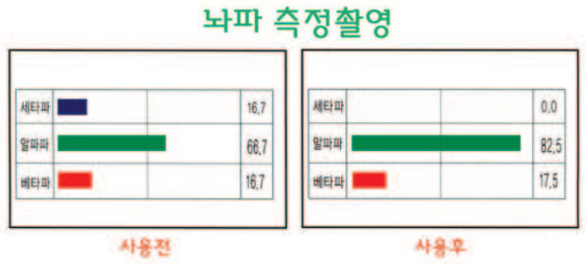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뇌파 측정촬영


검버섯 제거 현상




사찰음식 '엄지 척' 중국대사도 반했다

[현장] 주한 중국대사관, 진관사서 사찰음식 체험

냉이죽을 만드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왼쪽 첫 번째)의 손놀림에 사찰음식 명장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하고 있다.



계호 스님이 두부조림을 만들어 중국대사관 직원들에게 시식을 권유하는 모습.



두부장아찌를 완성한 추 대사와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자랑하고 있다.



계호 스님의 안내에 따라 추 대사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진관사 도량을 둘러보고 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사 · 외교관 등 14명 참가
냉이죽 · 두부장아찌 체험해
"불교문화 예부터 늘 존경"
韓中 교류에도 적극 기여

"3년간 네팔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불교문화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해탈문을 지나면서 그간의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처럼 정성스럽게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 돌아가서 꼭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한지 5년째인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사찰음식 체험 소감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인 사찰음식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가운데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우리나라 사찰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추 대사와 중국대사관 외교관 등 14명은 3월 20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조계종 국제팀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진관사가 함께 마련한 사찰음식 체험을 즐겼다.

"한국불교 매력 느끼게 돼"

추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진관사에 도착해 템플스테이 국장 선우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추 대사는 극락교를 건너 해탈문 앞에 서서 직원들과 함께 합장인사를 하며 "내 안의 부처님에게 인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남을 부처님처럼 대할 수 있다"는 스님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산을 두 번째 방문한다는 추 대사는 진관사 경내를 둘러보며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봄 · 가을에 아주 아름다울 것 같다"는 감상평을 전했다. 이어 돌로 만들어진 보시함에 호기심을 보이며 "나중에 개인적으로 진관사에 오게 되면 이곳(불전함)에 마음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사찰음식 체험에 앞서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과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추 대사의 차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서 추 대사는 불교계의 환대에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해온 불교의 업적을 상찬했다.

추 대사는 "불교는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계종교 중 평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사회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며 "한국불교의 매력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중국대사로서 양국 교류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인사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대사님 표정이 올해 초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 한국불교와 사찰음식의 정수를 이곳에서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도 "오늘 사찰음식을 체험하시면 세속과 어떻게 다른지 느끼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체험은 진관사 함월당에서 진행됐다. 준비된 메뉴는 냉이죽과 두부조림, 두부장아찌였다. 사찰음식 명장인 계호 스님은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쌀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면서 "사찰음식은 마음을 담은 자연이자 자비, 지혜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사찰음식의 가치를 설명했다.

정성 가득한 사찰음식 호평

계호 스님이 처음 선보인 사찰음식은 냉이죽이었다. 스님은 물에 불린 쌀을 참기름에 넣고 냉이 삶은 물을 부어 천천히 저었다. 그러자 함월당에는 봄내음을 간직한 냉이향이 금세 가득 퍼졌다. 냉이죽에 넣기 위해 냉이와 버섯을 채썰 때는 현란한 도마질에 참가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자 계호 스님은 "50년씩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냉이죽을 만드는 데는 추 대사도 손을 보탰다. 추 대사는 냉이죽이 완성될 때까지 천천히 한 방향으로 저어달라는 계호 스님의 요청에 숙달된 솜씨로 나무주걱을 잡았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부인을 위해 음식을 해보셨느냐"고 묻자 추 대사는 "시간이 있을 때 종종 요리한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쉽게 하는데 사찰음식처럼 정성을 들여보진 않았다"고 답했다.

냉이죽 조리가 끝난 뒤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시식했다. 냉이죽을 처음 맛본 참가자들은 "맛이 정말 깊다"고 호평했다. 추 대사도 밝은 얼굴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냉이죽의 고소함을 즐겼다. 옆에 있던 계호 스님은 "대사님이 끓은 냉이죽이 아주 부드럽다"고 칭찬했다.

참가자들이 이날 직접 만든 사찰음식은 두부장아찌였다. 다른 사찰음식에 비해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가정에서도 유용한 밑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메뉴다. 참가자들은 솥에 간장과 채수를 끓이며 각종 재료를 넣어 미리 부쳐놓은 두부에 부었다. 두부장아찌는 3일간 숙성이 필요해 진관사에서는 개별 반찬통을 제공, 참가자들이 각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추 대사는 생전 처음 만들어본 사찰음식이 자랑스러운 듯 함께 음식을 만든 외교관들과 연신 기념촬영을 했다. 조리법을 친절히 가르쳐준 계호 스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한국에서 근무한지 4년 됐다는 평민위 3등 서기관은 "사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방문에 사찰음식이라는 좋은 경험을 하게 돼 좋았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찰음식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찰음식 체험을 마친 추 대사와 외교관들은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고, 차담과 포행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중국대사관 초청 한국불교문화 체험은 주한 외국대사관 중 5번째다. 앞서 스리랑카 · 네팔 · 미국 · 인도 대사들이 진관사를 다녀갔다. 하반기에는 태국대사관 초청 사찰음식 체험이 예정돼 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베트남 학생들에 '감로수' 선물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오혼 초교에 식수대 설치 협약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베트남 닥락성에서 봉사활동과 정수시설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탑(TOP)밴드봉사단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닥락성을 방문해 '부온마트옷 커피축제' 봉사와 부오혼 초등학교 정수시설 지원 협약식 등을 실시했다.

3월 9~10일 양일간 진행된 베트남 닥락성 최대축제인 '제7회 부온마트온 커피축제'에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등이 함께해 판소리 공연, 한지 부채 만들기 등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국관광 등 홍보활동도 펼쳤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축제 참가자 1만여 명에게 한국의 태고떡볶이를 제공했다.

전북종무원은 이어 11일 닥락성 부오혼초등학교를 방문해 정수식수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오혼 초등학교에는 100~150m 깊이로 관정을 뚫어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 500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저장탱크와 정수냉각시스템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열악한 전력사정을 감안해 3KW의 태양열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수식수대 설치에는 약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수식수대가 설치되는 닥락성 부오혼 지역은 주민의 98%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오혼 초등학교는 37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41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전한 바다 위해 함께 기도"

영도구불교聯, 해양 안전 기원법회 봉행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가 해양 안전을 위한 법회로 경찰들을 격려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3월 19일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청 5층 법당에서 경찰의 안전과 해양안전무사고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고문 도성 스님, 부산해양경찰 경승실장 호법 스님, 경승도은 스님, 범일 스님, 혜진 스님, 박성규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불자직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승실장 호법 스님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국민을 지켜주는 신장이다.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성규 해양경찰서장은 "여러 대덕스님들의 크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 우리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경승 스님들은 매년 안전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화합의 힘으로 창원불교 견인"

창원불교연합 제5대 회장 월도 스님 취임



창원불교연합회 제5대 회장에 천태종 마산 삼학사 주지 월도 스님〈사진 오른쪽〉이 취임했다.

창원불교연합회는 3월 17일 삼학사 대웅보전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회장 월도 스님은 무엇보다 화합의 힘으로 창원불교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월도 스님은 "연합회 모든 스님을 받들어 모시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이자 숙제"라며 "사부대중과 지혜를 모아 지역 문화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법회에는 창원불교연합회 상임고문 원행 스님, 이주영 국회부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한홍 국회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이·취임법회에서 삼학사 정영노 신도회장은 자비나눔 성금 1000만원을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전달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절 수행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

108배기도수행단, 절 수행 부산·경남 확산



108배 기도 수행이 부산과 경남에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출가재일을 맞아 삼보일배 수행정진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08배기도수행단이 이끄는 절 수행이 부산 경남에 확산되고 있다. 108배기도수행단은 SNS를 이용한 손쉬운 안내와 꾸준한 독려로 회원을 모집, 어디서든 할 수 있는 108배로 꾸준한 수행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출가재일 정진 기간에 700여 명의 불자들이 삼보일배에 동참하는 정진문화도 형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14~20일 출가재일을 맞은 통도사 무풍한송로에는 삼보일배 행렬이 줄을 이었다. 삼보일배는 108배기도수행단(지도법사 만초), 정법사(주지 도문), 홍법사(주지 심산), 백양사(주지 명본), 해남사(주지 혜원), 바라밀선원(주지 진원), 황룡사(주지 황산) 등 6개 사찰, 7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불자들은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합장한 채 발걸음을 한걸음씩 옮겼으며 허리를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몸을 낮추었다. 삼보일배를 마친 불자들은 서로 껴안으며 땀을 닦아주고 해냈다는 기쁨과 환희로 감사기도를 올렸다.

만초 스님은 "삼보일배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고난을 헤쳐 나갈 지혜를 얻었다"며 "오늘 경험을 널리 나누고 주변에 고통 받는 이가 있다면 기도 공덕으로 모두 치유 받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삼보일배는 108배기도수행단(지도법사 만초)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08배기도수행단 불자들이 절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통도사 개산대재와 출가재일마다 삼보일배를 진행했고 주변에 독려해 확장됐다. 앞으로 삼보일배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NS 이용 손 쉬운 안내
시·공간 제약 없어 도움
700여 명 삼보일배 동참
"수행, 마음의 근육 키워"

한편, 108배기도수행단은 절 수행을 함께할 불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108배기도수행단은 3년 전 지도법사 만초 스님과 20여 명의 불자들로 시작됐다. 만초 스님이 108배 수행을 하다 불자들에게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됐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108배 수행록〉을 제작, 100일 동안 스스로 점검하도록 도왔다. 불자들은 매일 절 수행을 하며 도반들과 수행 기록을 공유했고 지인에게 소개하며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했다. 현재 350여 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108배기도수행단의 오프라인 모임은 초심자의 마음을 여는 수단도 됐다. 오프라인 모임 장소를 일반 법당이 아닌 누각, 숯 찜질방, 태화강 강변, 네팔 룸비니 등 다채로운 장소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초심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부담 없이 불교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어디서든 절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계기도 됐다"고 전했다.

만초 스님은 효과적인 108배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용한 앱을 소개하고 책에 나온 정보를 공유하며 신심을 독려하고 있다.

만초 스님은 "세상을 바꾸기보단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며 "수행은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108배 기도 수행으로 부처님께 다가가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법맥 잇는 환희의 '부종수교'

부산 해인정사 수진 스님
4월 7일 전계·전강 법회



부처님의 법을 잇는 '부종수교(扶宗樹敎)' 환희의 법석이 열린다. 前해인사 승가대학장 수진 스님〈사진〉은 전계전강법회를 열고 율맥과 강맥을 전수한다.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4월 7일 오전 11시 경내 대적광전에서 '부종수교 관허수진 전계전강 법회'를 봉행한다.

전계전강식은 율맥과 강맥을 동시에 잇는 자리로 율맥은 창수-한파-만하승림-서응동호-동고문성-관허수진(117대)이며, 강맥은 서응동호-동고문성-관허수진으로 이어진다. 전계전강제자는 동운·인해·보명·보연·능주·법열·학산·지상·설총·서담·선담·우태 스님 등 12명으로 해인사 강원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에서 수학한 제자들이다. 아울러 수진 스님이 〈화엄경청량소초〉와 화엄경 사기인 연담 스님의 〈유망기〉, 인학 스님의〈잡화기〉를 완역할 당시 공동 번역에 참가한 제자도 있다.

법회는 은사 문성 스님에게 받은 전계전강식을 그대로 재현, 전발(傳鉢-의발을 전함), 전게(傳偈-게송을 전함), 법답(法畓-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증여해 의미를 강조한다. 수진 스님의 수행 도반인 해인총림 해인사 유나 원타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前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 등 선사들이 참여해 증명법사로 등단한다.

수진 스님은 "불조의 혜명을 대대로 전하고 심등의 교법과 율법이 살아 이 땅에 부처님의 종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계전강식을 열게 됐다"며 "이번 전계전강 법회는 선·교·율을 한자리서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잇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진 스님은 1971년 동고문성스님에게 발심 출가, 1974년 동고문성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강원 졸업, 금산사 화엄학림 졸업, 강백 운성·운기 등 10명의 스승으로부터 교학을 배웠다. 10년 동안 수선안거했으며 해인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지도했다. 종단에서는 초대 교육위원, 역경위원, 교재편찬위원, 계단위원, 교선사, 고시위원,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범어사 율주, 범어사·통도사 금강계단 3대 아사리를 담당했다. 1996년 친필 원고 10만장에 달하는 사상초유 청량국사 화엄경 〈청량소초〉와 사기인 〈유망기〉 〈잡화기〉를 완역했으며 현재 계단위원 단일계단 존중아사리, 동명대 석좌교수 및 세계선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16만 도자대장경 도량 서운암서 배우는 불교

3월 16일 불교아카데미 시작

16만 도자대장경 도량,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불교 아카데미가 시작됐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효범)은 3월 16일 장경각 법당에서 '제1기 16만 도자대장경 아카데미 입학식'을 개최했다. 16만 도자대장경 아카데미는 대장경 불사가 담은 평화 통일 염원을 전하고 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카데미는 일반 불교교리, 불교예절 등 기초적인 내용과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16만 도자대장경의 시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정병국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강의 일정은 3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어진다.

입학식에는 감원 효범 스님, 담마끼디 스님 및 입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강남불교대학
4월 신입생 모집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들을 치유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사찰은 인생을 치유하는곳이 되어야 하며 스님은 인생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 이런 스님은 도전해보세요 ···
1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2 불공이나 제사로 사찰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3 삿된 행위(부적이나 점)로 포교하고 싶지 않다.

응시자격
• 승려(종단불문)
• 승려가 되고 싶은 분(나이, 성별 불문)
• 고등학교 졸업자

특혜
• 라이프닥터 자격증 취득(민간 등록 자격증)
• 승적 취득 가능(종교법인 참종)
• 사찰 등록 가능(종교법인 참종)

수업안내
• 1학기에 6개월
• 총 8학기 4년 과정
• 주 1회 수업

모집정원
지도자 과정 00명

개강
4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학비
학비는 학기 당 50만원

입학신청은 홈페이지 www.gangnambu.org 지도자 과정의 입학신청 메뉴에서

문의 02-532-0012 | www.gangnambu.org YouTube 채널 | 강남불교대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1-14 2층

조계종 종무원 특강

‘평화 현실화’ 열쇠, 불교가 쥐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장 원행)은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서 종단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연례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도법 스님은 이 시대 핵심 화두인 ‘평화’에 대해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부처님은 전쟁 한복판에 앉아 전쟁을 종식시키며 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온몸으로 드러내보였다”며 “삶의 현장 곳곳에서 평화가 정책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한국불교가 크게 발심하고 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주제 :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조계종 화쟁위원 도법 스님



도법 스님은… 1995~2004년 실상사 주지를 역임해 현재 회주를 맡고 있다. 귀농전문학교 교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조계종 화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04년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으로 5년간 전국을 순례했다. 2018년 3월 1일부터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3월 1일까지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은빛순례단의 불교 대표로 여정에 함께했다.

외교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일상 속 분열 종식해야 ‘평화’
전쟁희생자 천도재 · 화쟁순례 등
“전 불교계 합심해 보여줄 때”

분단 70년, 성찰적 문제의식

실상사에서 100일에 한 번 지리산 연찬회가 열립니다. 작은 규모지만 대단히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2017년 열댓 명이 모여 식민지, 분단, 전쟁에 대해 논의했을 때예요. 분단 70년이라는 동족상잔의 역사를 단순화시켜보니 극단적인 분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승만과 김정일 두 수장이 함께하는 세력으로 나아갔다면 분단 70년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참석자들의 공통 견해는 “우리 안의 분열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서는 분단의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핵전쟁이 나느냐 마느냐를 논하던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한 참석자가 전쟁 불안이 고조되니까 자기 자녀들이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한다며 상의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손자손녀에게 전쟁불안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나라, 전쟁의 한반도를 넘겨주는 상황이구나 하고 실감이 나더군요. 차마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이란 자괴감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화의 한반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은 생은 열정을 다해 걷고, 묻고, 듣고, 배우고, 대화함으로써 함께 하는 마음을 모으고자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평화순례 향한 발심과 서원

100년 전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긴 내용의 완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늘 3.1운동 정신을 기린다고 말로는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부분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순례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출발점이 돼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2000년 초부터 많은 사람들과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방법을 모색해왔고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순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빛순례자들은 한국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은빛순례를 통해 독립선언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현충원 내 역대 대통령 묘소를 분향하는 것으로 시작된 순례는 분단 최전방인 백령도서 마쳤습니다. 방방곡곡 남녀노소가 함께 대한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3.1운동 100주년 3월 1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선언을 했습니다.

역사적 현장에 가보면 피맺힌 아픔들을 차마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산천 어느 한 지역도 피맺힌 아픔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전쟁 등 우리 안의 냉전으로 얼어붙은 피맺힌 응어리가 겹겹으로 쌓여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겼다, 졌다, 빼앗았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가슴마다 증오와 원망이 그야말로 핏덩어리처럼 엉켜있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그동안 헛 살았다”고 할 정도로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북 간 냉전은 평화적인 방향으로 길을 열어나가려는 노력 중인 반면, 우리 안의 냉전은 아직도 풀기엔 너무나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역에서의 갈등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어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삶이 지긋지긋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한다고 절규합니다.

한국불교의 최우선 과제

최근 10여년 세월동안 조계종은 많은 성과도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자의 자존감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출가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상처받고 무너져있어요. 우리 불교계는 불교인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내가 수행자노라, 불자노라 자랑스럽게 밝힐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것은 바로 불교에 대한 사부대중의 자존감,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온 종단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 그리고 광복 이후 오늘날 서구문물이란 새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교 스스로를 지켜내고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불교가 가진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히 많은 성과가 무색하게도 지난 10여 년간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불교는 1700년의 역사와 사상,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일반 시민들이 ‘불교가 저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대단하다. 저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불교라면 나도 불교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불교가 했던 적이 있나요? 불교는 한국 사회를 주도하거나 일반 대중이 불교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기대를 갖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잠재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불교가 한국사회를 한 번 들썩이게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종단이 마음을 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를 위해 한 역할을 하기 위해 과정들을 만들어내서 현실로 구현한다면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이벤트 성으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1000일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온 종단이 합심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교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의미부여가 이뤄집니다. 사회가 불자와 스님들에게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이 나라 어디를 보더라도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불교가 있어서 의지처가 되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인들의 상처와 자존감도 치유되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합동천도재와 화쟁정상회담

평화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남북정상이 회담을 했고 기적 같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계와 걱정도 있긴 하지만 세계가 주목하고 온 겨레의 가슴이 설레기도 한 일이죠. 사실 불교가 평화의 종갓집입니다. 평화가 현실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정상적으로 다뤄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온 전도몽상(顚倒夢想,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헛된 꿈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의 역사이도 합니다. 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몸짓으로 설법하는데, 전쟁 한 복판에 앉아있던 부처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 한 가운데 앉아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싸움의 방식은 안 된다.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불교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분노로, 증오는 증오로,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인내와 관용과 평화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온몸으로 실현한 이 장면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침 평화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 됐습니다. 다만 정치 외교문제로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현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면 정부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크게 발심하고 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냉전을 녹여낼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천도재’를 제안합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참전국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야심만만하게 준비하면 정부가, 남북 공동 차원, 어쩌면 UN까지도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마지막 냉전현장인 한반도에서 평화의 새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안의 냉전을 녹여낼 ‘우리 안의 화쟁정상회담’을 여는 겁니다. 지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는 불교의 ‘화쟁’과 ‘중도’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은 냉전을 녹이고 얽혔던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정상회담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정상회담을 기도하는 천 일 순례에 종단 모두가 함께한다면 한반도 평화실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온 종단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많이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냉전과 남북의 냉전을 풀어내는 화쟁정상회담순례를 통해 인적 자원들을 다시 살려내고 일으켜서 이 쪽 저 쪽 편을 가르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도반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감이 치유되고 불교가 빛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 민족의 희망도 만들 수 있는 우리안의 정상회담 순례 프로그램들을 적극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1 회
부산불교대상

부산불교대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불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불교계의 귀감으로
삼고 나아가 불교중흥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불교대상을 마련하여
제1회 수상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부산지역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대상
부처님 교리 실천, 불교발전,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의 불자 또는 불교 단체

추천자
부산지역 각 사찰 대표, 부산지역
불교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시상내역

대상	1명	상금 1,000만원 및 표창패
최우수상	1명	상금 500만원 및 표창패
우수상	3명	상금 200만원 및 표창패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 1부(소정양식)
- 공적조서(공적개요, 세부공적내용) : 1부(소정양식)
- 공적 증빙 서류
- 양식은 홈페이지 [www.bbf.or.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2019년 4월 5일(금)
-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까지 유효함

접수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우 47284)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기 준
부처님 교리 실천 노력, 불교관련 활동 실적,
불교발전 기여도, 사회봉사활동의 내용 및 기간,
지역사회 공헌도 등

결과발표
- 2019년 4월 18일(목) 예정
- 언론사 지면 및 개별 통보

시상식 안내
일 시 5월 4일(토) 저녁 6시(예정)
장 소 시민공원 부산연등행사 특설무대

주 최 |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주 관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문 의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051-808-8600
후 원 | BTN,BBS,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조선 왕실 '비애' 어루만진 자비도량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⑥ 왕실의 원찰, 승가사



승가사는 세종 등극의 숨은 비애가 서린 사찰이다. 궁중의 원찰로 많은 지원도 받았지만 그만큼 부침도 많았다.

세종의 승가사 약사기도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여 여론 조사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이다. 그가 보여준 치세를 보면 태평성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대에도 만 원의 지폐에 그려진 인물이어서 사람들의 애정이 식을 줄 모른다.

그런 세종은 처음부터 임금이 될 위치가 아니었다. 셋째인 까닭에 멀어도 한참 먼 위치였다. 그런데 첫째 양녕의 일탈이 문제가 되어 세자에서 물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둘째 효령이 있었다. 태종은 둘째와 셋째를 놓고 고민하다 셋째를 세자로 택했다. 술 한 잔 못하는 효령보다 사신이 왔을 때 술 한 잔 할 수 있는 셋째가 적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왕위에 오르게 되자 부인 심씨도 중전이 되었다. 아버지 심온 대감 역시 기뻤다. 일찍이 여러 판서를 맡아 업무의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었다. 결국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인 영의정에 올랐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왕실과의 혼인으로 명문가 반열에 올랐던 심씨 가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1418년(태종 18년) 세종은 22세에 등극하였다.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줬지만 군사와 정사의 중요한 사안은 세종을 거쳐 자신에게 품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병조에서 순찰경비 업무만을 품신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품신하지 않았다. 태종은 진노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주동자를 가려내도록 명령하였다. 9월 병조판서를 비롯하여 참판, 참의, 정랑, 그리고 좌랑 등 병조의 관리를 모두 체포하여 취조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사무착오로 판명되어 석방되었다.

그러나 11월 우의정 박은의 간계로 옥사가 재연되었다. 병조참판 강상인과 심온의 동생 심정이 주모자로 몰려 처형되었다. 이미 9월에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심온은 수모자(首謀者)로 지목되어 귀국 후 수원 땅에서 사약을 받았다.

가족들의 피해도 컸다. 소헌왕후의 어머니 순흥 안씨는 직첩을 삭탈당하고 천안의 관비로 배속되었다. 그 후 의정부의 식모로 옮겨지는 등 수모가 컸다. 집안사람들 역시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박은 일당은 소헌왕후의 폐출을 주청(主請)하였다. 태종은 평민의 경우도 출가하면 법에 연좌되지 않는데 하물며 국모인 중전을 어찌 폐출할 수 있느냐 하며 주청을 엄하게 물리쳤다. 세종의 간곡한 만류도 있었고, 중전이 이미 세 왕자를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도 작용하였다.

참변을 겪은 탓인지 왕후는 화병이 생겼다. 내전 어의를 보내 좋은 약을 써가며 치료하였지만 차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배불을 한 자신이 사찰을 가기가 민망하였다. 군주가 사찰을 찾았을 경우 유생들의 반대가 빗발칠 것도 고민이었다. 세종은 신임하는 신하를 보내 기도를 올렸다.

세종 4년(1422) 5월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을 승가사에 보내어 약사기도를 올렸다. 이때 우의정 정탁(鄭擢)을 흥천사에 보내 그곳에서도 약사기도를 하도록 하였고, 이화영(李和英)을 개경사에 보내어 관음기도를 하였다. 다급한 세종의 상황을 보는 듯하다.

이런 기도는 8월에도 이어졌다. 찬성사(贊成事) 맹사성(孟思誠)을 승가사로 보내 부처님에게 기도하였다. 이런 기도로 왕후의 화병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세종을 기쁘게 하였다. 12년(1430) 중전이 완쾌되자 다시 연사종을 승가사로 보내 수륙재를 거행하였다.

중전의 완쾌에 기뻐한 세종은 승가사를 배려하였다. 7종의 불교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할 때 승가사는 양주 지역에서 개경사, 회암사, 그리고 진관사와 함께 선종 18개 사찰에 속하게 하였다. 이것은 서울과 지방에 수행자들이 지낼 만한 절 36개소를 가려서 양종에 분속시킬 때였으므로 남다른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세종과 소헌왕후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승가사 사원전이 60결이었는데 90결을 더해 150결로 늘렸다. 거주할 수 있는 수행자의 수를 70명으로 하였다. 그 후에도 세종은 18년(1436) 승가사에 독서당을 설치하여 집현전 학사들이 독서하는 곳으로 삼아 관

소헌왕후 화병 치유사찰
왕실, 숭불 시선 피해 지원
청나라 우호상징, 불상 봉안

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의 승가사 기우제

세종은 즉위하던 1418년 11월 사원 노비를 혁거하여 관청의 노비로 삼았다. 의정부, 대간, 육조에서 일제히 사사노비는 물론 승려들이 상전하는 법손노비(法孫奴婢)까지 혁거하여 속공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사사노비의 혁거만을 받아들여 모든 사사노비와 개경사, 연경사, 대자암 같은 왕실 원찰의 노비를 혁거하였다. 이런 조치로 사원의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원전을 경작하지 못하면서 수행자들이 절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7종의 종단을 선교 양종으로 폐합하였는데 조계종, 천태종, 총지종을 합쳐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흥종을 합쳐 교종으로 하였다. 이때 선종에 18개 사찰과 4,250결의 토지, 1,970명의 수행자 그리고 중심사찰을 흥천사로 하였다. 교종은 18개 사찰과 3,700결의 토지, 1,800명의 수행자 그리고 중심사찰을 흥덕사로 하였다. 이런 조치는 각 종파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행해졌으며, 사원이 대폭 정리되고 수많은 승려가 환속하고 막대한 사원의 토지가 강제 속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종은 왕실의 불교신앙을 지탱해 온 내불당을 폐지하였다. 세종 15년 정월 내불당이 혁파하고 불상을 흥천사로 이운하였다. 그밖에도 세종은 연소자의 출가를 금지하여 수행 인력의 부족을 가져왔고, 철폐된 사원의 불상과 종을 녹여서 병기로 만들었다. 국행불사의 설행을 줄여서 비용을 절약한 것 등 사소한 것을 합하면 조선의 여느 왕보다 불교를 강력하게 억압한 군주였다.

그런 세종도 불가항력이 있었다. 자연재해였다. 세종 25년(1443) 7월 큰 가뭄이 들었다. 하늘을 바라보고 비오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었다. 임금은 승가사를 비롯한 재경 사찰에 승려를 시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였다.

기우제를 지내 본 세종은 31년 이후 승도가 기우하여 만약 비가 내리면 기우제 설행에 대한 보답을 정례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왕은 기우법회에 파견된 조정의 감찰까지도 승도와 함께 불전에 배례하는 것을 정례로 삼았다.

정조는 위기 모면, 승가사는 재건 기회

조선의 배불정책은 왕조 내내 계속되었다. 가끔 숭불의 군주가 나타나긴 했지만 잠시였다. 그러나 질병과 가뭄 등 국가적인 어려움에 유교는 의지처가 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불교에 친근감을 갖는 군주가 있었다. 그러나 대신과 사대부들의 반대에 드러내기 어려웠다. 정조 대왕이 그러했다.

정조 4년(1780) 9월 청나라에 간 사신에게 황제가 불상을 보내며 장수를 기원하였다. 청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정책적으로 불교를 존숭하였기 때문에 불상을 선물로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조선의 배불의 분위기였다. 사신들도 그런 사정을 아는지라 받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사양하였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청나라와의 외교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를 염려하여 할 수 없이 받아왔다.

불상을 갖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 조정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논의가 2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급기야 11월 유생들의 상소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불상은 사특하고 더러운 물건이므로 배척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 결국 불상은 대궐로 오지 못하고 묘향산 절에 두는 것으로서 일단락되었다.

그런 불상이 정조 8년 12월 대신들이 정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시 거론되었다. 불상은 청 황제가 동궁에게 하사한 것이고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궐 내에는 봉안할 장소가 없으니 가까운 사찰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숭불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정조는 불상의 새로운 봉안처로 승가사를 언급하였다. 당시 승가사는 황폐해져서 겨우 승려 5-6인 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정조는 승가사를 고쳐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다. 신하들도 그렇게 하면 불교를 숭상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동조하였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짐작하건대 처음 묘향산에 두었다가 청나라가 왕실에 준 것임을 지적하자 다시 대궐로 옮기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그런데 대신들과 유생들의 반대가 문제였다. 숭불의 군주로 비춰지기 싫은 정조는 궁궐과 멀지 않은 곳에 봉안하면서 외교적 결례도 무마하고 대신들과 유생들의 반대도 무마할 곳을 찾았다. 그곳이 승가사였다. 그런 인연으로 불상이 봉안된 승가사는 승려들의 노동을 면제 받았다.

정조가 승가사를 거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 조선 전기 승가사는 불암사, 진관사, 삼막사와 함께 왕실의 4대 기도도량으로 지정되었다. 왕들이 행차하여 기도하면서 왕실과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거의 폐사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승가사가 회복된 것은 정조 4년(1780)에 성월(城月)의 중수부터였다. 그 후 몇 차례 중건을 거치면서 승려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정조 8년 청나라에서 보낸 불상을 봉안하고 승려들의 노역을 면제하는 혜택도 재건에 큰 계기가 되었다.

정조 이후에도 승가사는 고종 때 명성왕후와 임상궁의 후원으로 중건되었다고 하니 승가사는 여러모로 조선 왕실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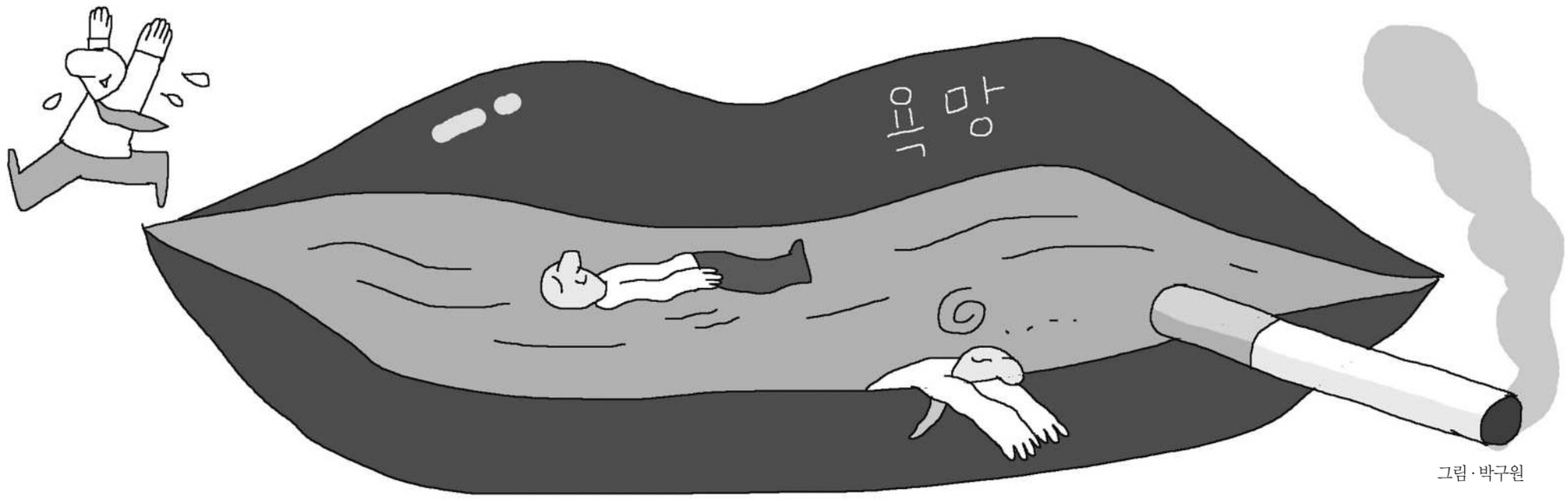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갈애’의 치료 방법 ‘사성제’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⑥ 갈애의 다른 선택



그림·박구원

금연 세 달째, 경섭씨의 애타는 갈망

금연은 코칭의 단골 이슈다.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신년 계획 중 하나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금연에 도전하는 강섭씨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3월 첫 주 리마인드 코칭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나누었던 코칭 대화는 이랬다.

- 담배를 피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어수선할 때 연기를 뿜고 있으면 차분해집니다. 특히 분노가 갑자기 솟아오를 때 상대를 멀리 하고 혼자서 담배를 물고 있으면 이상하게 여유가 생깁니다. 오래 되고 보니 시간마다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졌어요, 담배는 수시로 찾는 친구예요.

- 그렇군요. 그런데도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아무래도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늘 잔기침이 나고 목이 자주 아파요. 아이들과 아내도 담배 피는 모습을 싫어하고요. 또 돈도 많이 들지요. 용돈 중 가장 큰 부분이 담배 값입니다.

- 지금 하신 말씀을, 금연 후의 변화로 바꿔 보시면?

- 우선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요. 가족들도 반기겠지요. 용돈도 넉넉해지니 다른 취미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몸에서 냄새도 덜 나고 주변이 깔끔해지고. 또… 끊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네요.

강섭씨가 금연을 위해 실천하기로 한 과제는 4가지였다.

1. 차차 줄여나가는 금연은 효과를 못 보았으므로 단번에 확 끊는다.

2. 사무실에서 담배를 함께 피는 동료들을 당분간 멀리 한다. 특히 술자리!

3. 식후 끽연의 욕구를 참기 위해 차 마시기를 생활화 한다.

4. 무료할 때 담배 피우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퇴근 후 한 시간 단위로 할 일을 만들어 시간표를 짠다.

리마인드 코칭에서 강섭씨는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로 2번을 꼽았는데, 오래 격의 없이 지내온 끽연 동지들을 멀리 하려니 마치 왕따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거야 이해를 구하면 되지만 사실 괴로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불안하고 짜증나고 집중이 안 되는 금단 증상은 알고 있었다. 강섭씨가 예상 못한 고통은 결박된 자신의 영혼을 느끼는 일이다.

“신체의 이상보다도 정신의 금욕 상태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금연 중, 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치 팔다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납니다. 누워 있다가도 발작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기도 해요”

강섭씨가 금연 상태에서 끽연을 욕망하는 이 마음이 갈애다.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의 편안함을 그리워하고 그걸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초조하고 목이 마르고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금지된 욕망을 갖게 된다.

담배를 한 개비 꺼낼 때의 작은 설렘, 손에 꽂고 입에 물었을 때의 감촉, 한 모금 내뿜을 때의 해방감. 그 즐거움을 이제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잃어버린 쾌락의 크기는 더욱 증폭되고 온 몸과 마음이 그 욕망에 휘둘린다. 한 번만 해보아도 지금 갑갑하게 억눌리고 목마르는 감정이 씻은 듯이 해소될 것 같다.

술 마시고 수십 통의 전화를 해대는 수창씨

금연이나 금주보다 한 단계 깊은 욕망이 남녀 사이의 집착이다. 상대가 주는 상실감까지 보태지면 더 절실한 갈망이 된다.

많이 해보고, 들어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줘, 꼭 할 말이 있어.”

그대의 화사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 그 좋았던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다시 못 보고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간절해진다. 그렇게 다정했던 그대가 돌아선다니 믿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해도 다시 애쓰면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집착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고 사랑받던 환희의 순간을 되찾고 싶은 갈애다.

이 갈애가 어찌나 지독한지 수많은 노랫말이나 소설의 스토리가 말해준다. 변심한 연인을 찾아가고 스토킹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수창씨는 지난해 여름을 이런 지옥에서 보냈다.

- 술만 마시면 그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수십 통의 발신 번호와 문자가 기록된 전화기를 보면 너무 비참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기껏 잘 잊고 지낸다 싶다가도 이런 밤을 보내고 나면 다시 달려가는 마음을 붙잡느라 또 고생을 합니다.

인간 고통 ‘갈애’서 시작
집착 · 애탐 등으로 이어져
붓다 말씀 들고 수행을

- 그녀와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나요?

라고 하면 그는 이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녀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 이제 그녀를 추억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에 붙들려 있는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정했던 그 세월 속에 잠겨 있던 마음이 이제는 뭔지 모르는 집착과 갈망에 완전히 먹혀버린 것 같습니다.

수창씨의 대답처럼 갈애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 있을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마음이 마음을 먹는 상태.

금연과 실연은 금지된 욕망이라는 점에서 그 절실함과 애탐이 닮았다. 또한 그 갈망이 한번 채워진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강섭씨는 한번 담배를 피워 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하루에 한 갑을 태우는 헤비스모커가 되리라.

수창씨 역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나준다 해도 애타는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녀를 보아서 확인했기 때문에 더 목마르고 한 번 더 만나면 그녀가 마음을 돌릴 것도 같고 다시 사랑이 시작될 것 같은 갈망은 여전하다.

인간의 고통은 딴하에서 시작된다

붓다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딴하(tanha)로 시작된다고 보았다. 딴하는 욕망이나 갈망, 갈애로 번역된다.

금연과 실연을 되돌리고 싶은 갈망은 극단의 경우지만, 일상의 욕망에서도 인간은 만족을 모른다. 특정한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 더 깊은 욕구가 생겨난다. 이런 상태가 곧 갈애다. 갈애는 고통을 가져온다.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없애고 안락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는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고(苦)에 시달리게 된다. 붓다가 깨달은 후에 거룩한 발견이라고 한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인생은 고의 세계라는 것이며, 그 고통의 원인과 치료가 사성제의 진리에 집약되어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초전법륜경〉

두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금지된 욕망에 시달리는 고통을 호소하던 강섭씨는 그 갈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지된 욕망이 끽연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금연의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 올 때마다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 상태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항상 다짐을 합니다.”

그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했으며, 자신의 니코틴 중독지수를 측정해보고 금단증상을 이겨나가는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옛 애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자 수창씨는 새로운 연인을 만들기로 했다. 다른 만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가 그토록 괴로웠던 것은 헤어진 연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시간은 그 상처를 무디게 하고 실연의 아픔보다 뜨거운 사랑의 단맛만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갈애가 욕망을 곧바로 취하는 한편으로 불만족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면 수창씨의 새로운 사랑은 지나간 갈애의 해결이며 또 다른 갈애의 시작이다.

끝없는 욕망의 굴레서 벗어나는, 진정한 갈애의 극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숙제라는 수창씨와는 이런 대화로 코칭을 마무리했다.

- 붓다의 가르침대로라면 모든 중생이 이성에 대한 욕망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글쎄요. 더 이상 애타게 하지 않는 충족된 사랑을 찾는다면 갈애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을까요? 저도 수행 중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인간의 감정을 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탐미, 탐식, 탐욕은 모두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자연의 선택이다. 특정한 만족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사라져야만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으며 진화하고 발전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자극과 흥미거리는 인간의 이런 끝없는 갈망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속절없이 사라지는 만족감을 우리는 한탄하며 그 느낌을 지속시키려 애쓰는 과정이 곧 삶이다. 그러나 이런 삶의 본능만을 쫓아서는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욕망의 쳇바퀴를 넘어서야 갈애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니 우리는 평생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붓다의 말씀을 붙들고 수행을 계속한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과정 총 동문회

초대회장 도심 스님 취임식 및
요산 풍수지리학회 제4대회장 이 • 취임식



도 심 합장

• 안성 연등사 주지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과정 총 동문회 회장
• 요산 풍수지리학 제4대 회장

귀의삼보 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지절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 과정 제1기생부터 16기 수료생 300여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금번 300여 동문이 화합과 단결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총동문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 도심 스님(제6기) 취임식 및 요산 풍수지리 학회 제4대 회장에 도심 스님이 선출되어 회장 이·취임식을 함께 봉행하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셔서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불기 2563(2019)년 3월

일시 : 불기2563(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오후6시30분(음력 3월 19일)
장소 : 동국대학교 로터스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26)

— 총동문회 사무총장 — 배영희 010-2705-0959
— 요산회 사무총장 — 이재복 010-5305-8338
— 교 수 — 심재열 010-5282-3388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 이지만 소리가 월등하고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사찰에 시설이 되었던 시스템을 차에 그대로 재현하였으니 염불 인생들은 이 소리에 내 염불을 한 번 실려 보시지요.

▣ 본품은 염불전용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A/S는 본사의 생명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청 락**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한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⑥ 연기-인과율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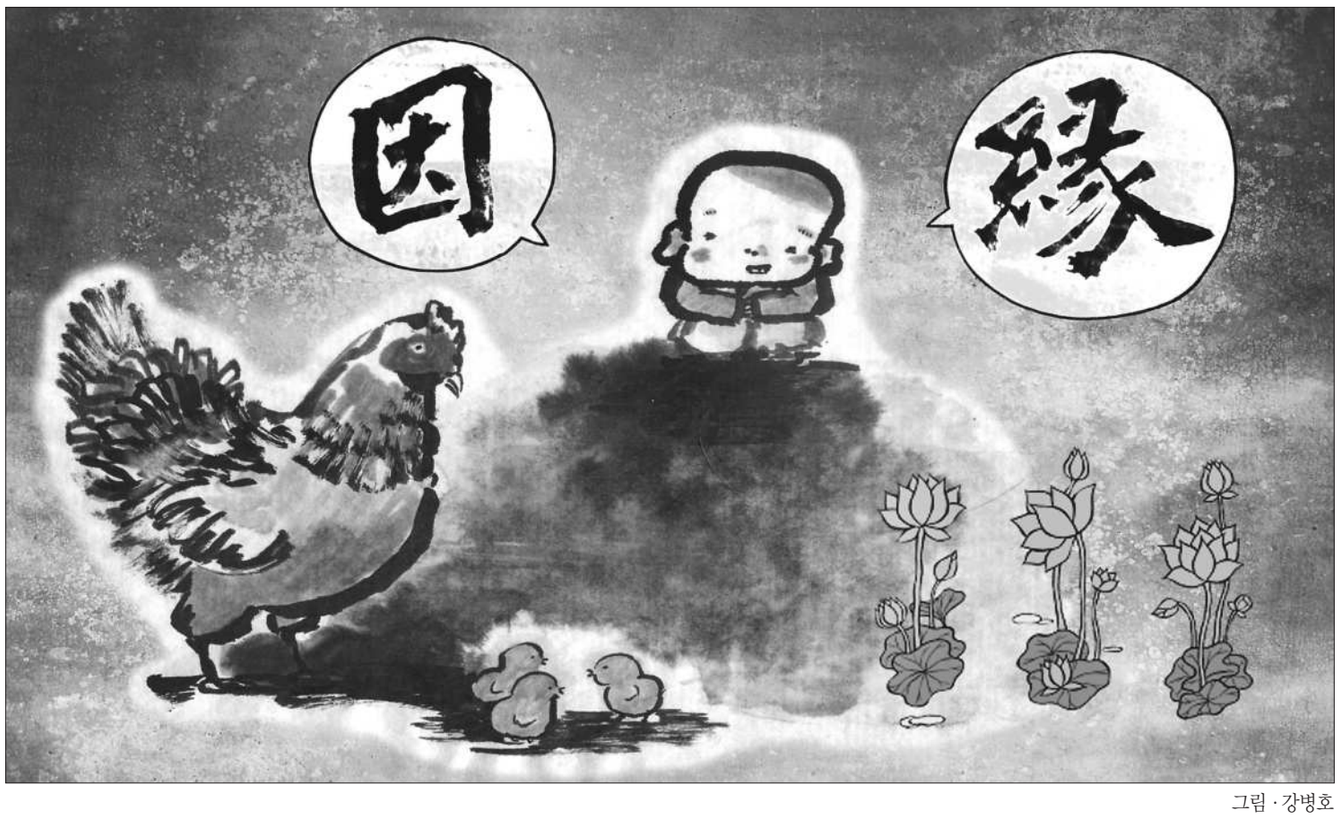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옆집 아줌마가 불교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사찰에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사찰에 가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라고 물었다.

"불교, 부처님이 깨우친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다. 그러자 다시 "불교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돌아왔다. 뭐라고 해야 할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께 이 목숨 거두어 돌아갑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기고,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 없어지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볏짚 두단으로 연기를 보이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볏짚 두 단을 놓고 설명을 했다. 볏짚 한 단은 서 있을 수 없지만 볏짚 두 단이 맞대어 서 있는 것을 빗대어 연기를 설명하였다. 대구 팔공산에 연기가 났다면 연기 피어오르는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 불은 못 봤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명할 때 일어난 원인, 그 원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것이다.

결국 연기는 부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고민한 문제의 결과이다. 이 삶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기를 한 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과인 것이다. 이 결과를 보고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연기에 접근해 가는 방법이다.

불이 일어난 것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왜 연기가 나는가?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1%가 나를 부처로 만든다

우리는 왜 죽는가? 안 태어났으면 죽지 않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왜 태어났느냐는 이 문제로 12연기를 공부해보자. 12연기의 마지막이 무명이다.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했다.

'왜 태어났느냐, 왜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의 출발점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아와 무상의 문제로 돌아간다. 이것은 엄밀하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결과를 보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연기이다. 일반적으로 인과법칙이 바로 연기인 것이다.

우리는 인과응보를 믿는다. 분명히 전생을 믿고 60%가량 인과를 믿는다고 했다. 60%가 믿는 인과를 100% 믿을 수 있도록 불교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연기는 인과의 법칙이다. 인과는 구체적으로 보면 인연과(因然果)의 법칙이다. 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고, 결과의 원인을 찾아보니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이 되는 부수적인 환경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인과를 믿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인연과의 법칙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인의 문제이다. 바로 어떤 일의 근본원인이 되는 것이 인이다. 즉 어떤 일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어떤 일의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되는 자신이 바로 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연이라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 된다. 이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과가 된다.

'인과응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은 데는 분명히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콩을 심었을 때 다 똑같은 콩이 나는가? 만약 비옥한 땅에 콩을 심었다면 콩이 잘 자라서 수확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콩을 자갈밭에 심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이 시원찮을 것이다. 그러면 콩이라고 하는 씨앗은 인이 되며 그 콩을 심은 땅은 바로 연이 된다.

그런데 인이 아무리 좋더라도 연이 좋지 못하면 인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비옥한 땅이라도 튼튼하지 못한 콩 씨앗을 심었다고 하면 콩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아무리 연이 좋더라도 인이 시원찮으면 제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자신이 바뀜으로 연이 바뀐다**
>
> **부처가 될 씨앗은 60점이고**
>
> **지옥에 갈 중생심은 40점이다**
>
> **아직은 부처 쪽이 가까우니**
>
> **지옥보다는 부처되기가 더 쉽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몸 받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인연의 문제인 것이다. 바람이 스쳐가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했다. 그 인연의 의미가 이렇게 깊다. 인과 연의 문제에서 인이 무엇이며 연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이 변하면 학생도 변한다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보면 선생님이 인이고 학생은 연이다. 선생님이 인일 때 그 가치 기준은 90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은 죽어도 선생님의 가치 기준인 90점에 못 미친다.

문제는 60점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90점을 만드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이 바뀌면 즉 선생님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학생들은 안 바뀐다. 똑같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알아듣는 학생이 있고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학생을 위해서 밤새워가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접근해가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선생님의 끝없는 노력이 학생으로 하여금 90점을 만들게 한다.

예를 들어 미운 학생도 있고 고운 학생도 있고 공부 잘 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 못 하는 학생도 있다. 선생님이 가르쳐줘야만 아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 예습을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 다 알게 된다. 문제는 예습을 해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 결국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되고 끌어올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 복습을 해도 모르는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이 숫자를 이해 못한다면 구슬을 갖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학생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쉽다. 결국 선생님이 바뀌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변화하게 된다.

연기 법칙은 "내가 먼저 변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산다.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데 있어 남자가 인이라면 여자는 연이 되고,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주체니까 인이 되고 남자가 연이 된다. 여성 불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즉 여자가 주체이다. 여자가 인이면 같이 사는 남자는 연이 된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90점짜리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60점 밖에 안 되는 영 형편없는 남자인 것이다.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90점 정도만 되면 좋겠다"며 90점을 카트라인으로 정해 놓았다. 그래서 나와 같이 사는 남자는 최소한 90점짜리는 되어야만 하는데 90점 밑으로 갈 때는 계속 잔소리를 하여 90점 이상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이 남자는 60점짜리다. 결국은 인이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은 90점 정도 되는데 연이 만들어 내는 것은 60점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전쟁이고 투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인이 60점짜리인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기준을 60점으로 낮추면 이 남자가 100%로 마음에 들게 된다. 가치기준을 9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주위를 둘러보면 60점짜리 남자지만 마음에 들 수 밖에 없다.

100% 마음에 드니 늦게 온다고, 술 너무 많이 마신다고, 이제까지 짜증부리고 화내고 잔소리했던 것이 저 사람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생각하니 가엽고 곱게 보이기 시작한다. 100% 마음에 드니 짜증낼 일이 없다. 연기는 묘한 법칙이다. 남편을 그대로 두니 1년이 지나고 보니 스스로 90점짜리 남자에 되어있지 않은가. 내버려두면 스스로 변하는 묘한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부를 한다. 나를 변화시키느냐, 주위를 변화시키느냐의 문제에서 나를 바꾸기가 쉽다. 죽어도 주위는 바뀌지 않는다.

나를 바꾸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 바로 여기서 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온다. 왜 공부하고 수행해야만 하는가? 세상에서 바꾸기 제일 쉬운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를 바꾸는 것이 주위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왜 '견성성불' 하라고 하셨는가?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다면 주위를 변화시키라고 했겠지만, 결국 스스로 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이다. 내 자신이 바뀌면 연도 따라 바뀐다. 그러므로 내가 부처되면 세상은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인과 연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항상 인이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우주는 행복하다고 했다. 한 사람의 행복 때문에 이 우주는 행복할 수 밖에 없다.

연기에 대한 결론으로 내가 바뀜으로써 연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처될 씨앗은 60점이고 지옥에 갈 중생심은 40점이다. 아직은 부처 쪽이 가까우니 지옥보다는 부처되기가 훨씬 더 쉽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인식하는 것만큼 연민이 생긴다고 했다. 내가 90점을 생각하다가 60점으로 낮추었을 때 얼마나 가엾고 불쌍하게 보이겠는가? 연민의 마음이 60점 밖에 안 되니까 60점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다. 60점에 만족해서 끝없는 연민을 느끼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60점짜리가 70점이 되어 있고 80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원력이다. 연민이 상대방인 연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천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
월제혜담 스님 대 고려불화展을
성료 하였습니다

13일간의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장에 방문하신 전국의 모든 지인과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께 혹여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참회드리며 소승 월제 혜담은 금생의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고려불화의 맥을 이루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주최, 후원, 협찬해주신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려불화 불모 **월제혜담** 합장
(사)계태사 고려불화 학술연구소
계태사 불자회 일동



〈수월관음상〉
혜담 스님 作

| 주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후원 |** 서울시, 문화재청, 은산해운항공, BBS, BTN **| 협찬 |** 대명전선(주), 유엔비 피부비뇨기과

현자는 칭찬과 비난에 안 흔들려



新 불교사자성어

⑪ 팔풍부동(八風不動)

삶에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8가지 바람이 있다. 칭찬(稱)과 비난(譏), 기쁨(樂)과 근심(苦), 이익(利)과 손실(衰), 명예(譽), 헐뜯음(毁)이다. 팔풍부동(八風不動)은 이 여덟 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듯,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팔풍 속에 있다. 날마다 사업, 출세, 돈, 명예, 근심, 걱정, 번민, 증오 등 팔풍에 시달리고 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희로애락의 팔풍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팔풍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팔풍인 셈이다.

팔풍이 심한 날에는 꿈속에서도 계속된다. 악당에게 쫓기는 꿈이나 무서운 꿈을 꾸면서 발버둥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꿈속의 일들은 좋은 못한 일들이 더 많다. 어쩌다 좋은 꿈을 꾸어도, 그 순간은 매우 짧다. 꿈은 의식의 반영, 현실의 반영이라고 한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열자(列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공자의 제자 안회가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젠 쉬고 싶습니다. 언제쯤 쉴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 북망산(무덤)을 바라 보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죽어야 쉴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살아 있는 한 팔풍과 이별할 수가 없다. 관건은 칭찬(稱), 비난(譏), 기쁨(樂), 근심(苦), 이익(利), 손실(衰), 명예(譽), 헐뜯음(毁) 등 팔풍에 동요하지 않는 것, 초탈, 초연해 지는 것밖에 없다. 팔풍이 불어와도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무던해지면 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팔풍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구경(81)〉에는 다음과 같은 명구가 있다.

"견고한 바위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매우 좋은 구절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속된 말로 목에 힘을 주고 오만을 떨며 우쭐댄다. 이것은 자신이 소인이라는 것을 노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 비난하면 쉽게 열을 낸다. 이렇게 남의 말에 우쭐해 하거나 열을 내면 이미 팔풍에 걸려든 것이다.

또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들뜨고 방만해 진다. 반대로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울해지고 수심에 잠긴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비방에 마음은 극락과 지옥, 열탕과 냉탕을 반복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희로애락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평상심, 평정심을 가지라는 것이 팔풍부동의 의미이다.

팔풍에 흔들리면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 고통뿐이다. 흔들리는 강도가 높으면 고통의 강도도 높고, 강도가 낮으면 고통의 강도도 낮다. 적게 흔들리면 적게 받는다. 기술은 가능한 적게 받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얼마만치 적게 흔들리고 살아가느냐.'가 기술이다. 그것은 곧 얼마만치 마음의 상처를 적게 받느냐와 직결된다.

팔풍 가운데 칭(稱)은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데, 면전에서 칭찬하면 진심이든 립서비스든 보통은 '감사합니다' 혹은 '과찬입니다'라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한다. '소 닭 쳐다' 보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푼수나 소인은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추켜세우기도 한다. 설사 훌륭하다고 해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고 없이 나를 찾아왔는데, 들어서자마자 앉지도 않고 나를 칭찬해대기 시작한다. 어찌되었든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니 그게 세 번째가 되었을 때엔 팔풍부동이 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네 번째 방문부터는 갈 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지없이 빌려주어야 한다. 돌려받은 적은 없다. 팔풍에 걸린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전륜성왕 상투 속 구슬 주면 안 된다"



격절록 강설

⑪ 3칙 백장불자화 3

[評唱 2]

古時尊宿 纔見僧來 便擧起拂子 問佛法 或問祖意西來意 多擧起拂子 所謂 如獅子教兒. 迷蹤訣 纔方跳擲又翻身了也 須會他宗師家手脚始得 如此奇絕. 看他師資相見. 如印印空 更無瑕玷 如印印泥 誰辨得他字義. 到這裏 道吾舞笏同人會石鞏張弓作者知 如印印水.

옛날에 존숙(尊宿, 덕 높은 어른)들은 (학인)스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불자(拂子)를 들어 세웠고, 불법(佛法)을 묻거나 혹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을 물을 때에도 많이들 불자를 들어 세우곤 했는데, 이른바 마치 사자(獅子)가 새끼를 가르치는 것과 같았다. 미혹한 자취를 끊어야 바로 뛰어올라 몸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저 종사들의 솜씨가 이와 같이 비할 데 없이 기이했음을 알아야 한다. 저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는 것을 보라! 마치 도장을 허공에 찍는 것과 같아서(如印印空) 조금의 허물이나 잘못도 없고, 마치 도장을 진흙에 찍는 것과 같은데(如印印泥) 누가 저 글자의 뜻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도오(道吾)가 홀(笏)을 잡고 춤을 추자 동인(同人,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알았고, 석공(石鞏)이 활시위를 메자 작자(作者, 선지식)가 안 것이 마치 도장을 물에다 찍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涅槃心易曉 差別智難明. 只如 溈山問仰山 "馬祖出八十四員善知識 幾人得大機 幾人得大用" 仰山云 "百丈得大機 黃蘗得大用 自餘皆是唱道之師" 看他馬祖一喝 百丈直得三日耳聾 且道 此一喝意作麼生. 不見適來道 "輪王髻中珠 不可輕分付" 古人那裏肯獨自用來.

열반심(涅槃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차별지(差別智)는 밝히기가 어렵다.

위산(溈山)이 앙산(仰山)에게 물었다.

"마조(馬祖)에게서 84명의 선지식이 나왔는데, 몇 사람이나 대기(大機)를 얻었으며, 몇 사람이나 대용(大用)을 얻었느냐?"

앙산이 말했다.

"백장(百丈)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黃蘗)이 대용大用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창도사(唱道之師, 교가의 스님) 일뿐입니다."

저 마조가 일 할(一喝)을 하자 백장이 곧바로 3일 동안 귀먹었던 것을 보라! 자, 말해보라! 이 일 할의 뜻은 무엇인가? 좀 전에 말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전륜성왕의 상투 속 구슬은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을! 고인(古人)이 언제 제멋대로 쓰는 것을 긍정했는가?

❋도오는 관남도오(關南道吾)를, 동인(同人)은 도오의 스승 관남도상(關南道常, 염관제안의 법손)을 뜻한다.

❋석공은 석공혜장(石鞏慧藏)을, 작자는 삼평의충(三平義忠)을 뜻한다.

❋석공혜장(생몰 연대 미상): 당나라 때 스님으로 원래 수렵을 업으로 했는데, 어느 날 사슴을 쫓다가 마조도일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는 활을 버리고 출가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삼평의충(三平義忠, 781~872): 석공혜장에게 참구하고, 후에 대전보통의 법을 이었다.

❋위산영우(溈山靈祐, 771~853): 당나라 때 스님. 제자 앙산혜적과 함께 선풍을 크게 거양하여, 그 법계를 위앙종이라 함. 15세에 출가, 백장회해 문하로 들어가 법을 이음.

❋앙산혜적(仰山慧寂, 803~887): 17세에 출가하여 두개의 손가락을 잘라서 서원을 세우고 삭발함. 위산영우에게 참학하여 법을 이음.

❋황벽희운(黃蘗希運, ?~850): 백장회해의 법을 이음. 배휴의 청에 의해 출가지인 황벽산에 가서 황벽이라 이름 짓고 개조가 됨. 제자로는 임제의현이 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⑪ 믿음 편 11

우리 마음 깨끗하면 그것이 정토

얼마 전 어느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스님 한 분과 조문을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스님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고인이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에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나무아미타불' 독송을 들으면서 고인이 누워있었다. 흔히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데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고인에게 염불을 들려주고 싶은 유족의 마음을 병원 측에서 이해하고 영안실로 모시는 시간을 늦춘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인의 얼굴이 무척 편안해보였다.

다소 낯선 경험이었지만, 불자들이라면 이런 방식을 매우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에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 고인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아미타 정토의 실재 여부를 떠나 그 믿음으로 남은 이들의 아픈 상처는 치유된다. 종교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아미타신앙에 의하면 누구든 '아미타불' 명호를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타력신앙이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누구이며, 그분이 사는 정토는 어떤 곳이기에 불자들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일까?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이 본래 한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세자재왕여래(世自在王如來)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법장비구(法藏比丘)가 된 사연을 전하고 있다. 법장비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 원(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서원을 48가지로 구체화한 것이 유명한 48대원이다. 법장비구는 5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수행과 보살행을 통해서 이 원을 성취하고, 석가모니 붓다보다 무려 10겁 전에 성불했다고 한다. 그 48가지 서원이 모두 이루어진 정토가 바로 극락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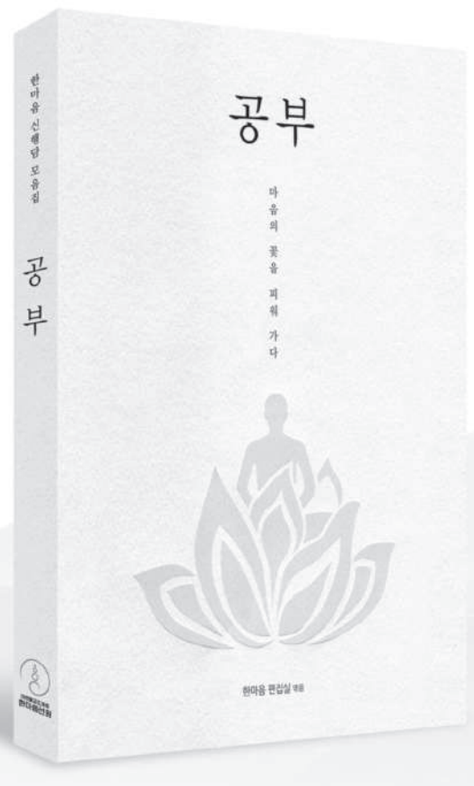
아미타(阿彌陀)는 아미타유스(amitāyus) 또는 아미타바(amitābh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불(無量壽佛)', 즉 시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라는 뜻이며 아미타바는 '무량광불(無量光佛)', 즉 공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을 비추는 부처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무량수전, 혹은 무량광전이라 부른다. 이 아미타불이 사는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있다고 해서 서방정토, 혹은 서방극락세계라고 한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는 땅이 금과 은 그리고 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이 한량없이 많으며, 광명이 찬란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기가 비길 데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나고 죽는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생명과 광명, 즐거움이 넘치는 극락의 세계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멋진 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 있다. 바로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 즉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석가모니불보다 아미타불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방정토 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아미타불께 맡기는 데 있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아미타불께 맡기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아미타불과 서방정토가 저 멀리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유심정토(唯心淨土), 자성미타(自性彌陀)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대로 정토요, 아미타불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면 '나무아미타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과 광명의 자리에 돌아가겠다는 자기고백이다. 이는 곧 자력신앙과 다름이 없다. 하나의 신앙이 자력과 타력 둘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신행의 지침으로 삼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버닝썬 수사에 총력 쏟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조계종 예방서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계종을 예방해 최근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 등 관련 경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민 청장은 "근래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많다"며 "전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그 걱정을 씻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공평하고 편안하게 나라 일을 이끌어달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 청장은 "스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일과 같이 국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야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 요구에 맞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직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인재양성이 일궈낸 음성포교

자비암예술단, 창립 4주년 콘서트

부산자비암문화예술단이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은 3월 16일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자비암문화예술단 콘서트'를 개최했다.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문화예술로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부산자비암문화예술단'을 창단, 현재 가수 30여 명이 동참 활동하고 있다. 소속 단원들은 가수협회에 등록된 정식 가수로 뛰어난 무대 매너와 실력을 자랑하며 각종 불교 행사서 음성포교로 봉사하고 있다. 특히 자관 스님은 음악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 후원하고 활동을 위한 무대를 개최해 격려하고 있다.

창단 기념 콘서트는 주지 자관 스님의 축사, 이진복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가수들의 흥겨운 음악 무대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민을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자관 스님은 "앞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맑히는 불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이주민 포교에 적극적 관심을"

Interview

마하이주민협의회 신임 상임대표 호산 스님



"그동안 마주협 공동대표로서 후원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이주민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스님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임 상임대표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무엇을 하겠다고 공표하기보다는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불교계 대표 이주민 지원 NGO단체인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에 선임된 호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 사진)은 3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마주협은 2월 25일 정기총회서 호산 스님을 상임대표로, 사회부장 덕조 스님(당연직), 마주협 前상임대표 정호 스님, 진오 스님, 도제 스님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마주협에 속한 정회원 단체는 17곳으로 이주노동자 · 다문화가정 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노동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까지 이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소속 준회원 단체 및 연계 이주민법당은 14곳이다. 호산 스님은 불교계 이주민지원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전국 지역 활동을 답사한다는 계획이다.

2월 25일 정기총회서 선출
앞서 공동대표로 활동해와
회원단체 활동 답사하며
애로사항 수렴 · 개선 목표

"이주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 불교국가 출신입니다. 한국에 온 해당 국가 출신 스님들이 이주노동자들과 결혼 등으로 국내에 안착한 이주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현장을 답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산 스님은 4월 중 마주협과 왕래하는 불교국가 출신 스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을 만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신도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스님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향후 스님은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포교 △지역행사 공모사업 △후원 확대 △준회원 단체 및 연계 법당 정회원으로 전환 등을 중심으로 마주협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가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공동대표 스님들과 연고가 있는 지역마다 행사들을 기획해 공동행사인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이주민지원단체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마주협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쟁 · 비극에 맞선 진정한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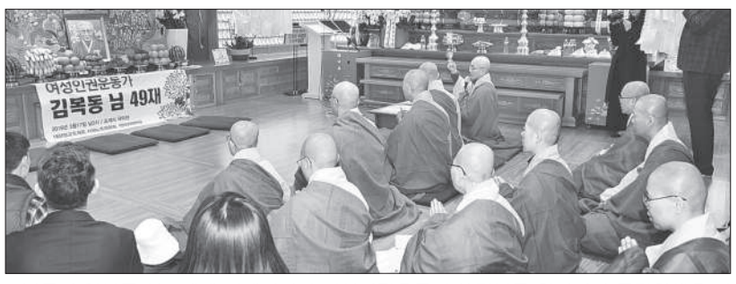
사노위, 故김복동 할머니 49재

"당신은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의 고통을 떨치고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한 진정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큰 보살이었습니다. 부디 아픔과 슬픔, 분노는 놓고 극락세계에서 왕생하길 바랍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정의기억연대(대표 윤미향)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님 49재'를 3월 17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서 봉행했다. 이날 사노위 소속 스님 11명은 이 같이 밝히며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故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독실한 불자로 알려졌다. 사노위는 수년간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하며 할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1월 말 사노위 스님들의 집전 하에 고인의 입관식이 치러진 것을 계기로 이날 49재 역시 사노위가 하게 됐다.

49재는 △고인 약력 소개 △추모사 △구호 제창 △염불기도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노위 스님들이 봉독하는 염불소리와 함께 시민들은 영전 앞에 삼배를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스님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故김복동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염불기도를 하는 모습.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앞장선 용감한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와 이별한다"며 "고인과 사바세계에서 인연은 다하지만 김복동 할머니라는 별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고인에게 "한반도가 서로 화합하고 한 발씩 양보를 통해 남북통일이 되고, 전쟁 없는 나라에 살면서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빛나는 별처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권미경 연대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과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도 추모에 동참했다. 이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문제해결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14살 소녀 하나 지키지 못한 나라, (일본의)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나라에 대한 원망은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고인과 약속했다.

故김복동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고인이 남긴 500만원을 사노위 측에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국내외 인재불사 후원

은해사, 선화여고 등에 9000만원 전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선화여고 이사장)이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청소년 장학금 8,000만원과 지구촌공생회 지원금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명문 선화여고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돈관 스님의 원력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지원 기자

관응 스님 15주기 다례

직지사 중암, 3월 15일 영산대보전서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15일 관응당 지안 대종사 원적 15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과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 前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관응문도 상좌 덕해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진광 스님,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한불련, 2019년 포교사 품수 및 연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석인경)는 3월 17일 천안 천불사에서 2019년 포교사 품수식 및 연수를 개최했다. 한불련은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대종사를 증명으로 품수식을 진행, 10명의 새내기 포교사를 배출했다. 또한 100여 명의 포교사가 동참한 오후 연수에는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대지진 피해 복구, 사찰은 '소외'

동일본대지진 발생 8년, 종교시설 복구 난항

박영빈 객원기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지 8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왔다. 그러나 종교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폐허에서 다시 금 도시들이 부흥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찰들은 재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3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사찰들이 재건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특별 보도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유실 · 전체붕괴 · 일부붕괴 · 일반손해 등 피해를 입은 사원의 수는 3,199개소. 이중 전체붕괴로 폐사된 사찰만 45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주인원이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형종단의 사찰들만 보고된 것이다. 무인사찰이나 인법당 등의 손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동일본지역(아오모리 · 이와테 · 미야기 · 후쿠시마현)에 소재한 공식 등록사찰의 수가 3,587개소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사찰 수는 89%에 달한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전통사찰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건축물의 규모가 큰 만큼 대진공사나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찰이 개별적으로 손을 대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찰의 피해가 막대한 이유를 분석했다. 슈토쿠 스님은 "단지 기와 한 장이라도, 목조건축인 사찰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와지붕이 지상에서 높이 10m가 넘는 것은 기본이며, 목탑의 경우엔 단지 점검비용만 해도 최소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이 든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재난보험에 사찰이 가입하지 않은 것도 재건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혔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법당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일수록 보험금이 고액으로 산정되기에 많은 사찰들이 재난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대형종단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찰도 있지만 단지 건축물에 대한 보험금만이 산정되었을 뿐 불구와 불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진에 폐사된 사찰만 45곳
피해 입은 사찰까지 3200곳
사회자본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가지원금 사찰에 안 전해져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재건되지 못한 사찰. 사진출처=프레지던트 온라인

피해가 심각했던 사찰에 있어서는 종단으로부터 지원금이 일부 나왔으나 사찰을 재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진으로 사찰이 모두 붕괴한 한 사찰은 "종단으로부터 전체 붕괴된 사찰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300만 엔의 지원금이 나왔다. 그러나 재건에는 최소 억 단위의 금액이 필요해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사찰이 사회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점도 재건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새롭게 제정된 헌법상 정교분리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나 납골시설 등 장례시설은 사회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찰의 소유라는 점에서 개인재산에도 포함된다. 순수하게 장례시설이 사회자본으로 인정되더라도, 시설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 사찰의 재건이나 이전과 같은 종교시설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피해지역에서 사찰 등 종교시설들의 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불교명절이나 사찰의 전설이 지역 풍습과 전통행사 등 연계가 많은 일본불교 특성상 사찰을 사회자본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회나 종교적인 풍습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강화되며, 부지가 넓은 사찰의 경우 자연재해 시에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다. 실제 동일본대지진 당시 무너진 사찰이나 신사부지에 지역주민들이 대피, 무너진 건물 자재를 활용해 임시거주지를 짓거나 땔감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종교시설의 재건에 국가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동일본지진으로부터 8년,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대나무횃불의 장엄 '슈니에' 회향

일본 토다이지, 2주 걸쳐 1200년 역사적 법회

일본 천년고찰이자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토다이지(東大寺)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특별법회 '슈니에(修二会)'가 2주간의 법회를 회향했다. 지난 3월 1일 1,200년을 이어온 법회의 모습을 '나라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사가 특집 보도했다.

매년 봄에 일본 각지에서 열리는 슈니에 법회는 8세기경 일본왕실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음력 1월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법회는 악업을 참회하고, 불보살을 공양한 공덕을 나라를 위해 회향해 한 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한다.

토다이지의 슈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슈니에 법회로 기록상 752년에 최초로 봉행됐다. 이후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년 이어졌다. 심지어 물자와 인원이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대중스님들의 노력으로 봉행돼 '불퇴의 행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토다이지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1면관세음보살을 모신 니가츠도(二月堂)법당에서 슈니에를 봉행한다. 사중에서 특별히 엄선된 11명의 스님이 매일 6차례 관세음보살상을 요잡하며 참법(懺法)을 독송한다. 특히 토다이지의 슈니에에서 유명한 행사는 관세음보살에 올릴 공양수를 긷는 행사와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커다란 횃불을 들고 달리는 행사로 모두 3월 12일에 행해졌다.

12일 새벽, 5명의 스님들이 니가츠도 아래의 우물에서 공양수를 길었다. 이때의 공양수는 슈니에를 마친 후에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담긴 약수로 신자들에게 나눠진다.


12일 저녁 니가츠도 난간을 질주하는 거대한 대나무 횃불(오타이마츠).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오후 7시 30분경 길이 8m, 무게 70kg 가량의 대나무 횃불 '오타이마츠(お松明)' 11개를 11명의 스님들이 어깨에 메고서 니가츠도의 난간을 질주했다. 이때 대나무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똥이나 재를 맞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횃불을 보기 위해 약 3만 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오타이마츠를 보기 위해 일부러 토다이지를 찾았다는 한 참배자는 "사진이나 뉴스에서 본 것보다 더 역동적이고 화려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출가자 정치참여, 새로운 일 아냐"

캄보디아 불교NGO 국장 크메르 타임즈 인터뷰서

정교분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사회와 국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불교의 현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캄보디아의 유력매체 '크메르 타임즈'는 특별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크메르 타임즈는 3월 15일 캄보디아 최대 불교NGO, '발전을 위한 불교(Buddhism for development)'의 국장 헹 모네첸다(Heng Monychenda)와의 대담을 전했다.

17년간 승가에서 비구로 활동했던 헹 모네첸다 국장은 '과학이 아닌 종교인 불교가 기업과 경제에 어떤 기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철학과 기술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기술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물을 만들 수 있게 하지만, 기술은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 후 "불교의 관점에서 기술은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하는 것, 이는 원칙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불교에서의 원칙은 바로 행복"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의 현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캄보디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재가불자로부터 탁발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스님들. 사진출처=크메르 타임즈

모네첸다 국장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진실함에서 부가 생겨난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를 위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삼독(三毒)인 탐욕과 무지에 의한 것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검소하고 겸손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가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그는 "율장에 따르면 승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물론, 군인을 축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출가자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스리랑카는 출가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역할과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는 "불교와 사회의 밀접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정치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네첸다 국장은 "불교적 리더십은 패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 모델"이라며 불교철학이야말로 현대사회에 가장 큰 역할을 지닌다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미국인들은 왜 불교에 눈을 돌릴까?

종교적 신앙보다 실천적인 명상에 집중해

많은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종교적인 신앙보다 명상을 통한 정신건강을 주 관심사로 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인터넷매체 '디 애틀랜틱'은 명상을 통해 각광받고 있는 미국불교의 모습을 전했다.

디 애틀랜틱은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적어도 매주 명상을 한다"고 전하며 온라인상에 불교명상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디 애틀랜틱의 필진 올가 카잔(Olga Khazan)은 "현재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불교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정신 건강"이라며 "비불교적인 명상 콘텐츠가 최근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프랭클린&마샬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마한 교수는 "동양에서 전해온 불교의 독창적인 문화가 서양적인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변형된 결과"라며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 불교철학의 특정 요소만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서양의 불교도"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불교명상은 종교적인 신앙을 떠나 하나의 정신건강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직장인 다니엘 산체스는 사성제중 고성제를 언급하며 "불교는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줬고, 이를 피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알려줬다"며 명상을 통해 업무에서 오는 감정적인 고통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 애틀랜틱은 "불교의 명상과 정신과 요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고 전하며 "서양에서의 불교는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삶의 도덕적 기반과 조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인생연대표’로 읽는 과거 기억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⑥ ‘글쓰기명상 실제’에 앞서



당신은 드디어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의 워밍업을 마쳤다. 본격적인 글쓰기명상을 하기 전 몸풀기를 한 셈이다. 그런데 가끔, 워밍업하다 탈진했다는 분이 있다. 워밍업이 이런 강도라면 ‘글쓰기명상의 실제편’은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지레짐작으로 두손 두발을 들까말까 궁리하는 분이 있다. 이해가 된다. 우리가 해온 워밍업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주제가 없었다.

삶의 동기, 신앙에 대한 동기, 몸, 느낌, 마음, 돈, 사랑, 인연, 건강, 일, 가족 등에 대한 내 마음 관찰 등등. 나라는 존재의 생존 최전선에서 철야 불침번 같은 주제들이자 정예 소총수 같은 질문들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니 카메라 앞에 선 아마추어 출연자처럼 당혹스럽거나, 혼란스럽거나 정체불명의 피로감에 넉다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어쩌면 “나는 이번 생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기억조차 없을 수 있다. ‘지금을 사는 이유, 한 달을 사는 이유, 올해를 사는 이유’ 이런 걸 꿈결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도 하다. 이런 제기랄, 천하의 아무개가 제 인생의 핵심 이슈를 일별해본 기억조차 없다니. 벼락같은 낭패감이 당신을 흔들어댈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당 수치가 바닥을 친 당뇨 환자처럼 모든 전망이 불안정하고 아득해질 수도 있다. 세상에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니!

하다못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내 몸의 특이한 점이나 흉터는?” 같은 질문 앞에서도 허겁지겁한다. ‘아무도 모르는 내 몸의 흉터라니? 그럴 수 있나? 그래, 정말 내 짝꿍도 모르는 흉터가 있기는 하지. 근데 그게 지금도 있을까?’ 툭 던진 잽에 맞아 혼절지경에 빠진 복싱 파트너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링에 오르기도 전에 지쳐 무너질 것 같다는 말은 괜한 푸념이 아니다. 고백하건대, 나 또한 글쓰기명상 워밍업에서 툭툭 던져지는 질문을 얻어맞고 뒤로 벌러덩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살면서 내 마음은 주로 어디에 사용해 왔는가?” 이런 질문에 한 방 맞기라도 하면, 오만상을 찌푸리며 나한테 되묻곤한다. 아, 나는 마음을 주로 어디에 사용해왔지? 글쓰기에 쏟았나? 아니, 근심 걱정하는 데 퍼부었을까? 딸내미를 과격하게 사랑하는 데 다 써버렸을까?

중도하차 고민하는 당신에게

글쓰기명상 워밍업을 하다가 본 과정의 중도하차를 고려하신 분이 있다면 잠깐 이 한마디만 듣고 가시기 바란다. 당신은 워밍업의 질문 항목을 읽어본 것만으로도 글쓰기 몸풀기를 대부분 수행했다. 답변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답변이라고 따로 정해진 바 없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이면 거품이기 십상인 게 우리 삶의 실상이다. 저수지에 낚싯대를 드리우면 같은 물, 같은 포인트에서도 다른 물고기가 올라오는 이치를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실망 스톱. 중요한 것은 워밍업을 하면서 그동안 잠들어 있거나 검붉게 녹슬어 삐걱거리던 의식이 화들짝 깨어났다는 점이다. 아침에 일어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고 밤새 탁해진 공기를 내뱉는 일처럼, ‘워밍업’은 의식의 환기 작업일 뿐이었다. 송곳 같은 질문에 찔리고도 무감감, 무감동했다고 실망할 일 아니다. 워밍업은 ‘글쓰기명상의 실제편’을 열기 위한 ‘관절 풀기’였으니까. 워밍업을 읽어본 것만으로도 당신의 먼지 낀 의식은 담요 털 듯이, 충분히 털어냈다.

〈글쓰기명상의 실제〉는 30여 개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원들은 워밍업에서 보았던 단도직입적인 질문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질문형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갑자기 푹 찌르는 질문보다는 달짝지근한 권유나 조언의 색깔이 강하다. 또 다른 점은, 제목과 내용풀이가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이다. 내용풀이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목의 속내가 드러나보인다. 맑은 개천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피라미 떼를 발견하게 되듯이, 제목 아래 내용을 잘 살피면 저자가 무슨 의도로 저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내 짐작할 수 있다. 제목과 내용풀이가 서로 연동하면서 당신에게 말을 건다. 글쓰기로 당신 마음 한번 들여다보지 않겠소? 그 시작은 ‘인생연대표 작성‘이다.

인생 연대표 작성 방법

- 기억나는 자신의 모든 삶을 연대기별로 한두 줄씩 짤막하게 적어가기. 한국사나 세계사 연대표 작성하듯 자신의 삶을 한 해 단위로 돌아보면서 초단문으로 적어간다.

글쓰기명상 몸풀기 단계에서
한계 느껴 포기하고 싶어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경험했다
겁먹지 말고 다시 두드려보자

- 자서전 쓰기, 시, 소설, 수필 쓰기 등의 기본 작업.

- 탁월한 자기 관찰과 자기 집중,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 큰 도움을 줌.

-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 응답을 보게 됨.

- 한 건씩 적어가는 동안 자신이 다양한 체험과 격변을 겪었음을 알게 되기도 함.

나는 왜 ‘글쓰기명상의 실제편’ 1순위에 ‘인생연대표 작성’을 배치했을까. 모든 글쓰기명상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분간 ‘나라는 물건’에게 화력을 집중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는가. 마치 클레이 사격장 사수대에 오른 사수처럼 나라는 존재의 감각과 생각과 기억과 감정 들을 겨냥하여 알아차림의 총알을 날리는 일. ‘인생연대표’는 당신이 겨눈 총구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해오는 기억의 포로들을 줄지어 세우는 작업이다.

‘인생연대표’의 특징은 내 살아온 이력을 연대기별로, 거칠게나마 적어가는 일이다. 이 글쓰기는 철저히 기억에 의존하는 만큼 단순하고 담백하다. 반만년 대한민국 연대기를 보라. 당신의 인생도 책갈피의 꽃잎처럼 건조 보관될 수 있다. 한 가지, 대한민국 역사 연대표는 후손들이 정리했지만 ‘인생연대표’는 당사자가 직접 정리한다는 점에서 각별하고 은밀하다. 당사자가 직접 정리하기에 자기신뢰는 기본 점수가 된다. 그것이 설사 열살 소년기의 어리버리한 기억이고, 스무살 청년기의 혈기방장한 널뛰기 과거라 해도 확신에 찬 사실로써 복원된다. 아무도 나의 기억에 토를 달지 않는 세상.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1977(10살) - 초등 4학년 3반 장현 선생님 /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신한제약(파리약 피디피로 유명) 옆으로 이사함. 동네는 새로 생긴 기와집이 많았으나 아직 밭들도 많았음. 가을이나 겨울에는 까마귀가 새까맣게 앉았고 봄에는 인분 내음이 요란했음 / 가창 분교인 중앙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음 / 선생님이 아침 등굣길에 교실에서 당신의 구레나룻으로 내 얼굴을 북북 문질러주었음 / 수업 중, 장난하다 걸려서 교탁 앞에 가 엎드리니까 선생님이 때리려다 말고 구레나룻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고 들어가라 했음 / 겨울에 과외 받던 애들이 눈싸움하던 기억

기억은 편집된 과거

이런 말이 있다. 기억은 편집된 과거라고. 기억은 의식의 색안경을 쓰고 제멋대로 재구성한 허구라는 말이다. 이를 말인가. 우리집 6형제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3가지로 기억하는 사태를 목도한 적이 있다. 7살 무렵, 우리집 장독대에는 내 키 두 배는 돼 보이고, 옆집 배불뚝이 할아버지보다 세배는 뚱뚱한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이 항아리가 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독대 항아리 중 왕초 항아리가 팍삭 깨졌으니 거기서 터져나온 맵고 짠 된장 내음이 온 집안에 진동하는 것은 불문가지. 수십 년이 지난 후 우연찮게 이 사건을 두고 형제들 간에 화제가 됐다. 형제들이 모여서 항아리 깨진 것까지는 행복한 기억통일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때 성아가 장독대에 대고 새총 쐈지?”

“어? 내가 아니고,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든 건데?”

“돌멩이는 무슨 돌멩이. 작은 누나가 나비 잡는다고 장독대까지 아갔다가 사고친 거지.”

“어머머!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항아리를 깬다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뭐야! 그 일 때문에 우리 아들들만 괜히 혼났잖아.”

없는 항아리라도 하나 더 깰 것 같은 기세로 시끄러워졌다. 동생은 동생대로 다른 기억을 추켜올렸고 누나는 누나대로 팩트 운운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들이댔다. 덕분에 분위기는 대봉 홍시 물러터진 것처럼 달짝지근한 난장판이 됐고, 그 틈에도 나는 ‘옳거니,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만세 부를만한 수확을 챙기고 있었다. 엉망진창인 누나의 민낯 못지않은 기억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 기억의 본래 얼굴은 이런 거였어.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정답이 있는 거였어. 아무도 못 말려.

그런가. 결국 ‘인생연대표’는 기억이라는 신기루의 헛된 말풍선이란 말인가. 기억은 편집된 과거이고, 의식의 색안경에 갇힌 과거니까, 별 의미 없는 것일까. 아니다. 기억은 기억으로서 이미 숭고하고 진실하다. 가족간의 기억이 제아무리 콩가루라 해도 가족이라는 진실 위에 놓이면 맛좋은 콩고물 범벅으로 변하게 되듯이. 당신의 기억이 신기루라하여 모두 다 제거해보라. 무엇이 남을까. 나라는 존재가 남아나기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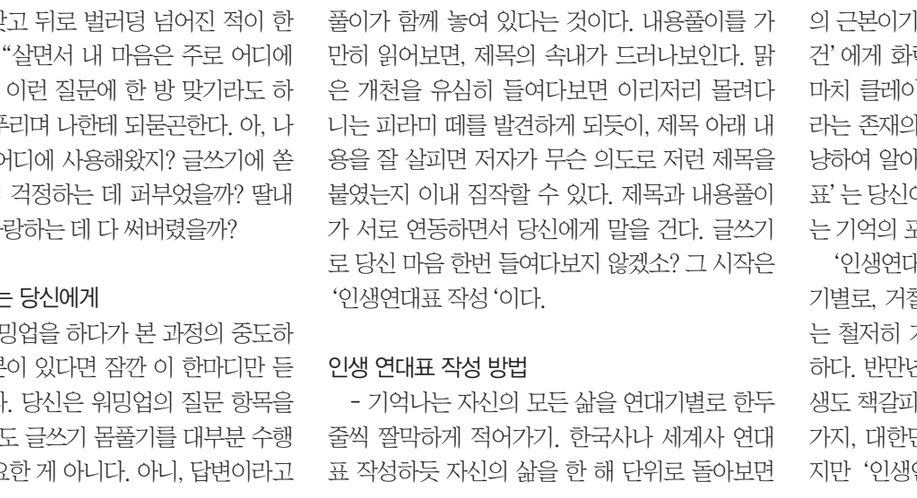
이 문제의 해답은 순수 기억에 기대어 ‘인생연대표’를 작성하는 당신의 마음에 있다. 당신은 의식 속에 박제된 자신의 역사를 낚아 올려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존의 어망에 담고 있다. ‘인생연대표’는 이미 죽은 시간을 거슬러 선과 면과 공간이 살아있는 입체의 세계로 환생시키는 일이다.

인생연대표의 작성 요령은 지금의 나이부터 과거의 시기로 거슬러 가는 방법이 있다. 거꾸로, 저 아득한 과거부터 순서대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긴 하다. 선택은 자유다. 이왕이면, 밀고, 당기고, 끼워넣기가 자유로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라. 사유의 특성이 그렇듯, 한 건의 단서가 잡히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잔잔한 인연들이 주렁주렁 달려나온다. 기억의 줄기 따라 요모조모 들여다보면 미처 몰랐던 내 정서나 마음의 지도가 드러나고 생각지도 못한 나만의 옹달샘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아는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때 그 일의 전모가 홀연한 깨달음으로 열릴 수도 있다. 아하, 그 일이 이거였구나.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연대표 작성’은 건축물로 말하면 설계도이자 기둥이다. 이 작업만 잘 정리해도 자서전 안 쓰고 못 배기게 된다. 자신한다. 자서전은 인생연대표라는 뼈대 위에 이런 저런 사연들을 하나씩 덧붙이는 일이다. 일단, 시작해보자.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제 13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대행 스님

일심이 공해서 그것조차도 세울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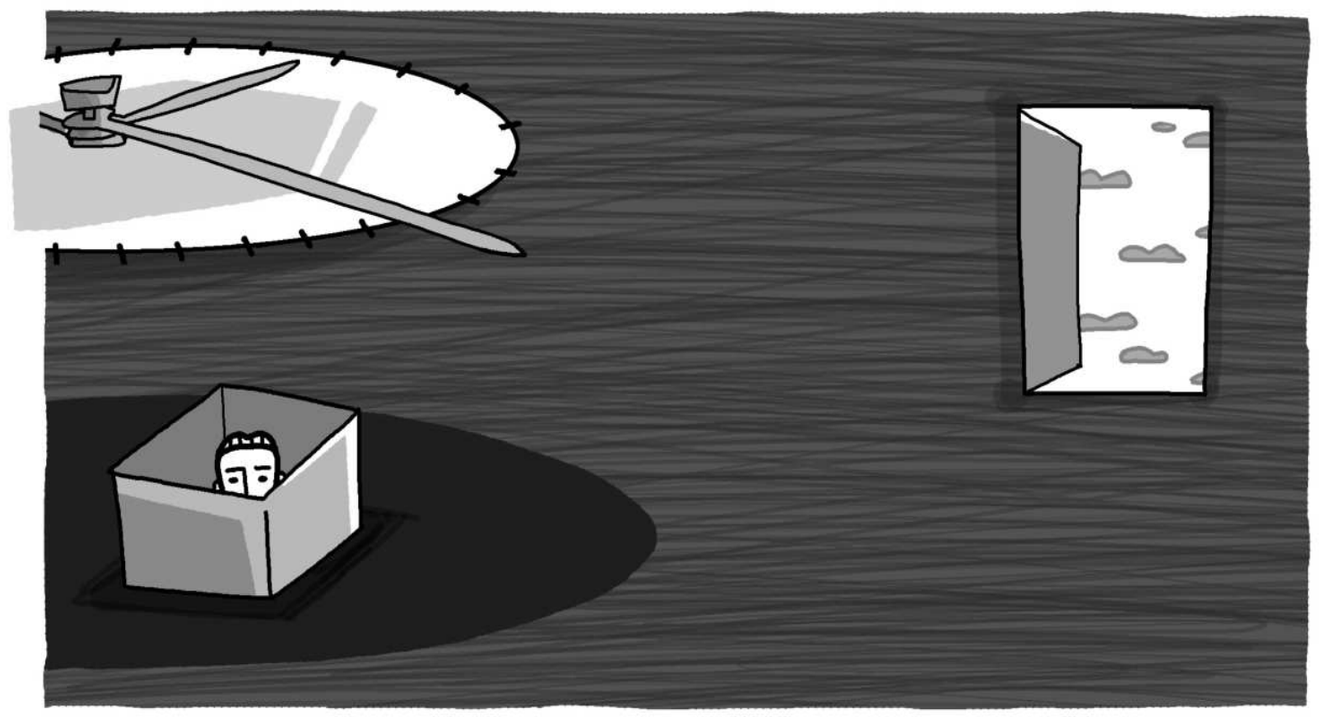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 그리고 맛있는 줄 몰라요. 식빵도 큰 거 하나 사다 놓으면 그게 맛이 없지만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놓고 하나씩 별러 먹으면 참 맛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문을 듣는 데도 항상 그냥 '아, 가면 듣는다.' 이걸로 끝나선 안 돼요.

우리는 음미해 볼 거 다 음미해 보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과거심과 미래심과 현재심으로 모든 것이 귀합될 때 귀합된 한마음의 그 한 점이, '일심이 공해서 그것조차도 세울 게 없다' 이 정도로 돼야 거기에서 참 생수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져야만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스승이 자기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루면서 또 바깥의 스승은 이렇게 설법을 해 주면 그걸 안으로 받아들여서 안으로 굴려서 또 둘이 아닌 것을 배우면서 자꾸 나투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자기한테 놓으면서 또 돌아가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나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또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끔 나투면서 또 돌아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참,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들었으면 듣는 대로 날마다 생활하면서…. 또 여길 오더라도, 내가 안 봐도요,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허리를 펴고 앉았는지, 다리가 저린지, 다리를 오그리고 앉았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알고 있는 대신에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앉아 있기만 하면 뭐, 수인 줄 아는데 그 마음 가짐가짐이 말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요새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야. 이게 색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 설법을 안 했다, 스님이 없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앉았다' 하는 게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벌써 자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부처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자부처라는 그 자체 한 점에 바로 스님네들의 마음과 역대 조사들의 마음과 모든 일체 사대성인들의 마음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접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 봐야 지리를 알죠? 지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 오선 줄이 한데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삼각원형을 이룰 수 있어야만이, 그것은 또 우리가 오광주를 얻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오광주를 한데 합쳐서 여의주라고도 해요. 그런다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요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요 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의 질(質)이 어떤지, 물이라는 것도 알고 컵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독약이 섞였는지 맑은 물인지 이것도 알아야 하고, 이 물의 생리도 알아야 하고 생명, 말, 뜻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디서 온 것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몸도 가고 코도 가고 혀도 가고 다 통신이 가서 이것 하나를 들 수 있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한 가지만, 보기만 해도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야,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직감적으로 '아, 여기 이 산의, 이 땅의 혈맥이….' 이러면 벌써 거기 땅속 깊이까지도 전부 나와 있어, 동시에. 그러면 그걸 알기만 해서가 아니거든. 그 땅이, 즉 생명이 있어서 같이 말할 수 있고 서로 통신이 될 수 있어야만 돼요. '그 땅 질의 역량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건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오면서 '네가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는 거나 똑같아. 이 땅 질이나 돌 질이나 이런 문제들도 깔축없어.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는 순간순간이 한 찰나에, 보는 순간 한 찰나에 오신통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만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보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듣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사람과도 그렇지마는 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미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무정물도 그렇고 우주의 어떠한 생명질, 항성, 행성, 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알고 기계의 모든 것을…, 이 인간이 복잡하게 기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됐듯이 기계도 아주 세밀하거든. 이 인체의 모든 세포가 아주 그냥 뭐, 이 두뇌만 하더라도 말도 못하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그럼 그게 줄 하나만 잘못되고 혼선이 돼도 그건 통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묘해요. 인간이 얼마나 묘하기에, 묘하고 광대무변한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저 위성이나 항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본래 그렇게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만이라도 책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거는 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초에 의해서, 한 시간을 초로 잡을 수도 있고 초를 한 시간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공이 없는, 속도가 빠른 그러한,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다 못해 아예 그냥 이렇게 놓여 있듯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있는 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지 못하는 시간도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는구나. 아유,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세 시간밖에 못 잤어.' 요렇게 생각들을 하거든. 그러면 그거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일 초로 정해 놓으면 한 시간이면 일 초가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나 오래 잤어요? 이해 안 가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았다면 일 분만 자도 몇 시간입니까? 60시간이죠? 허허허, 보세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 속도가 빨리 가는 것, 비행기를 타면 속도가 빨리 가는데 여기는 마차를 타고 간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같아요, 위에서 볼 때. 허허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간 이 자체가 1시간, 24시간 뭐, 이러고 가만히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늙는 거예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늙지 않죠? 왜 마음은 늙지 않을까요? 외려 철이 들고 늙지 않을까요? 마음은 빨리 돌아가고 육신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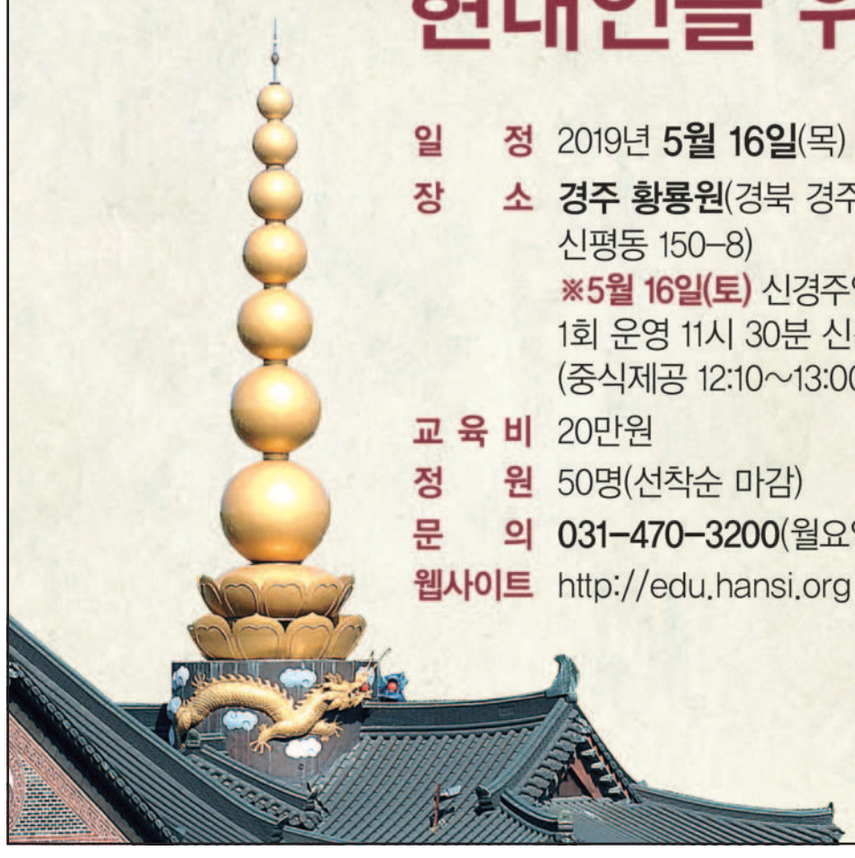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설법을 듣는 대로 그냥 무단히 넘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젊음을 소중하게 갖는 것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어느 정도는요.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고 젊음을 갖출 수 있다 이러는 거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아서 자도 그것은 해롭지 않다. 또 잡아서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 탓도 하지 말고, 자게 되면 자고 안 자게 되면 안 자고 그래도 벌써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한 시간을 자도 한 댓 시간 잔 거는 되거든요. 굳이 뭘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정신은 말짱하고 잠을 안 잤어도 괜찮은데,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눈이 게을러서 같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야 하고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어렵게 들으시면 어렵지마는 우리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체험을 해 보고 해 보고 하면 능숙하게 되죠. 왜, 보리밥 못 먹는다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먹어 보면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보리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서산 대사가 사명 대사더러 솔 이파리 찐 물에다가 날콩을 찧어 가지고 그 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설사를 하고 하나는 된똥을 누거든요. "왜 나는 된똥을 누는데 너는 설사를 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요것이 우리가 물질만 보고, 색만 보고 나간다면 시간율을 생각하고 하루 사는 거,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얼마다 계산을 하고 사니까 느릴 수밖에. 그냥 시간과 공간이 없이 그냥 차칵차칵 돌아가는데 이놈의 거는 그렇게 게으르게 시간 따지고 뭐 따지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이렇게 따지니까 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못 따라가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때 못 자고 좀 그렇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간의 삶을 보람 있게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실천에 옮겨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실천에 옮겨 보시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지, 항상 얘기만 듣고선 휙 날려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자기가 실천에 옮겨 보세요. 실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이 마음에다가 꼭 들이고 낸다는 거, 그거 항상 얘기해서 아시죠? 그거를 일 초 일 분도 떠나지 않으셔야 나중에는 '아, 떠나나 떠나지 않으나 그냥 항상 그대로 있구나!' 이게 나오죠. 처음에야 딱 그걸 붙들어야지, 언제나 그걸 붙들지 않고 됩니까?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땅에 묘향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묘향산 그 자체 내에 비구 절간도 큰 절간이 있지마는 그 산등성이 너머는 비구니 절이 큰 절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비구니 절에서도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또 비구 절에서도 농사를 지었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는 가물이 들었거든요. 가물이 들어서, 물이 이렇게 두 줄기로 이쪽에서 내려오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쪽 논에다 받으려고 큰 구덩이를 이렇게 파 놓고 항상 물이 내려오면 거기서 쓰는데 아, 이쪽에도 구덩이가 있고 저쪽에도 구덩이가 있는데 가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 조금씩 내려오는 걸 갖다가 비구들은 자기네 구덩이에다 다 받아서 인제 모는 심었는데, 이쪽 비구니 논에는 물을 주지를 않아서 그냥 논에 모를 못 심었거든.

그러니 비구니가 비구들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동등하다고 나서지마는 옛날에야 그저 댓 살 먹은 애를 보고도 오체투지하고 덤벼야 할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율은 지켜야겠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스님더러 가서 애길 했어요. 거기 혜봉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아주 유명했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스님이 나같이 못생긴 모양이에요. 못생기긴 못생겼는데 아주 상당히 유력했던 모양이죠.

하도 그 제자들이 딱하니까 "스님, 스님! 올해는 농사를 못 짓겠으니 어떡합니까?" 하니까 "왜 못 짓느냐? 이유가 뭐냐?" 하니까 "비구 스님들이 전부 물을 그리로 해도 그것도 적어서 비구 스님들도 논에 모를 다 못 낼 지경이니까 그냥 아예 이리로 들어오는 물을 막았습니다." 이거야. "그러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소리는 들은 둥 만 둥 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 내가 거문고를 튕기니까 말이다 아, 저 왜, 널 따란 뱀 있지? 그 뱀들이 그냥 전부 지금 고개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는구나. 산천초목의 모든 만물이 저렇게, 푸름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즐겨서 웃는데 저, 저거 봐라! 저거 봐." 하거든. "응, 거문고를 한번 튕기니까 그 거문고 소리를 듣고 저렇게 모두 쳐다보는구나. 그러니 저렇게 모두 모이는구나." 하거든. 그래 놓고선 또 시치미 뚝 따는 거라, 이놈의 중이.



애를 만나면 내가 애가 돼 주고
어른을 만나면 내가 어른이 돼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 기상대가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은 그냥 발버둥이가 쳐지는 거야.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면 못 먹는데. 식구가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스님! 스님!" 그러는데 그 도리를 아나? "스님! 아, 농사를 못 짓는다는데 웬 거문고는요?" 하니까 "얘야, 거문고 줄이 늦춰져서도 아니 되고 너무 옹쳐져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 튕기기 좋을 만하게 알맞아야 튕기는 소리가 아주 청묘하게 나느니라." 아, 이러곤 또 고만이라. 그래 고만이니 또 어떡하나. 그날 저녁에 공양을 다하고 난 뒤에 또 들어가서 "스님,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가 보려무나." 그러거든.

아, 그래서 아침에 비구니들 서넛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 구덩이에 그냥 가득하게 물이 차면서 논에 물이 찼거든. 너무 놀란 거야, 응? 이 비구니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더니 스님의 뜻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세상에, 거문고 소리 하나에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물을 준 원인도, 바로 이 물도 스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물로다가 그냥 뭐, 농사 금방 짓게 됐지.

그러니까 비구 절에서 그 물이 어디서 그렇게 생겼느냐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은 그 뜻은 자세히 모르나 그대로 우리 스님이 거문고 한번 탁 튕기는 바람에 이 물이 나왔다 이거야. 하하, 참 재밌죠? 거문고 한번 탁 튀는 바람에 그냥 속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비구 절에서도 참 신기한 거라. 그러나 그걸 믿어 주질 않아. 믿지는 않는데, 도대체 자기네들은 논 몇 마지기를 못 심고 있는데 벌써 여기 이 비구니들 절 논에는 다 심고도 물이 찰찰 넘거든. 그러니 어떻게 됐어? 그래서 거기 원주가 그 스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비구니 스님을 한번 만나 봐라." 그래서 만나 뵙고 나서 거기의 비구들 절 웅덩이에도 물이 그냥 철철 고이고 그때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비구니 얘기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놈의 게. 비구 얘기들만 있지. 응?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 저희 어머니 얘길 안 해 놔? 저희 아버지 얘기만 해 놓고. 하하하…. 그러니까 참 유명한, 예전에도 비구니 스님들도 유명한 큰스님들이 많았답니다. 일연 스님이나 뭐, 혜봉 스님 같은 분들, 또 실제 스님 같은 분들, 그냥 하고많은 이름인데 다 잊어버렸지마는 많은 스님들이, 유명한 스님네들이 많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구니들이 아니었더라면 비구들이 큰일을 해내지 못했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 큰일을 해내는 데는 비구니들이 뒤에서 다 뒷받침을 해 줬거든. 수없이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나라에 어떤 공헌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 때 문제도, 팔만대장경 문제도 그렇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래도 비구니 스님들이 꼭 나서서 뒷면에서, 앞에 세우는 거는 비구 스님네들 세우고 또 어떠한 사람을 세우지마는 뒷면에는 언제나 비구니 스님네들이 그 거름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살이 돼서 내조를 하되, 바깥의 남편을 앞에 세우더라도 항상 내조가 거름이 돼서, 어머니가 돼 줄 때는 어머니가 돼 주고 딸이 돼 줄 때는 딸이 돼 주고 또 친구가 돼 줄 때에는 친구가 돼 주고 또는 동생이 돼 줄 땐 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애하고 어른하고 만나면 말이 안 통하죠. 그렇게 돼선 안 돼. 애를 만나면 내가 애가 돼 줘야 돼요. 어른을 만나면 어른이 돼 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 기상대가 참 훌륭할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국의 기상대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그런 비오는 기상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도 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 착 보니까 벌써 기상대가 말이야, 기상이 쭈굴쭈굴해. 그냥 꾸물꾸물하고 검은 구름이 끼었어. 그럼 비 올 거거든, 그게. '아, 꾸물꾸물하구나. 이거 비 오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방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애들의 기상도 그렇고, 어른의 기상도 그렇고, 전체의 기상도 그렇고.

그럼 위에서 기상이 하나 나쁘면 아래까지 거든. 한 부분만 비가 와도 그쪽은 다 꾸물꾸물하거든. 그러니까 활짝 개였나,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살필 게 어머니들로서 딱딱 들어가 맞게끔 해야죠.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높게만 두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높은 사람은 얕은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꾼입니다. 언제나 윗사람은 심부름꾼이지,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똥 친 막대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체가 애들을 길러도 그 기상을 잘 봐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검은 구름이 끼었다면 "얘, 좀 쉬었다 해라." 차라리 요렇게 해 주면 속으로 '아이, 쉴 사이가 어딨나. 해야지.' 이러지마는 "얘!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말고 공부나 좀 해라." 이런다면 그거는 벌써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우산 쓰고 그냥 나갈 거야." 이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정의 기상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거, 남편의 기상대, 또는 애들, 어른, 자기, 뭐, 모든 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이에도 기상이 있거든요. 야, 요 간이 기상이 나쁘냐. 좀 꾸물꾸물하느냐. 그럼 거우가 또 꾸물꾸물하느냐. 옆구리가 결리느냐. 이마가 걸리느냐. 이게 다 기상이라고, 응? 통신 기상.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게,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법이면서도 이것이 여여한 도(道)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라는 이름이 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 진리가 그대로 도로 승화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게 도거든.

그리고 높은 것만 알고 높은 말만 제일이라고 하지 말고 얕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있고, 밥 한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한 사발이 있지, 만약에 한 숟갈이 없다면 한 사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숟갈 양이나 한 사발 양이나 똑같아. 아까 얘기했죠? 이게 비행기로 가는 거나 마차로 가는 거나 이것은 어느 부분이 빨리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본다면. 이게 빠르냐 이게 빠르냐 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비행기가 빠르다고 할 테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데서는 이게 빠르다 이게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럴 뿐이지, 우리 마음의 도리는 마음대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는 그 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를 아신다면 능률이 많이 날 뿐 아니라 이 기상, 또는 이 몸의 기상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녹음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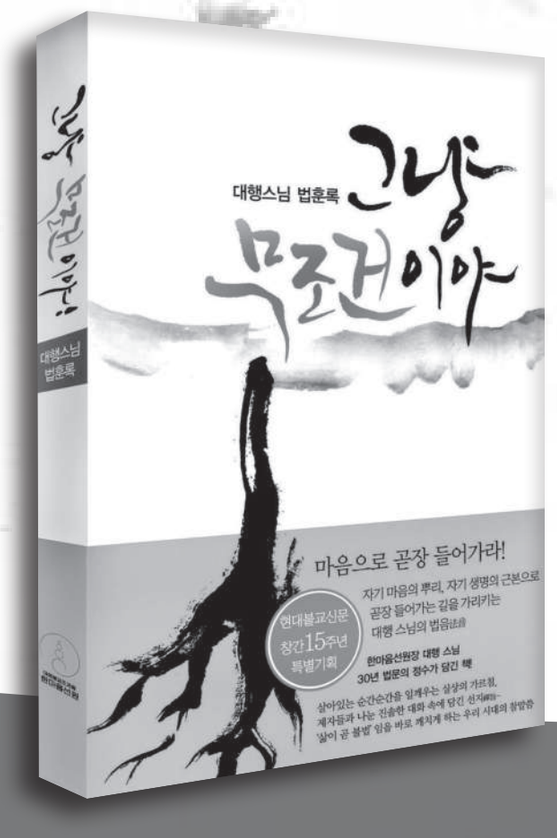
모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에이! 몸이 아프면 의욕이 없더라.' 그런 것도 알고요, 그러니 그저 아프든 안 아프든 의욕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거는 기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시무룩하다가도 야, 시무룩할 게 뭐 있나요? 잘 방지하면 그것도 또다시 승화해서 헤헤 웃을걸요. 이 몸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서 좌선들 하고 참선들 할 때도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프거나 뭘 하거나 안되는 일 뭐, 제가끔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를 당신이 주인공 거기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관할할 수 있는 그거를 갖는다면 한 시간이 가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앉음앉음이는 언제나 단 한 시간을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 시간을 앉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 년, 이태 그만큼 노력 안 하고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참, 법당에서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든지 나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하고 언제나 좌석을 같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총무 스님이 알선을 하고 내 뜻을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요.

※위 법문은 1986년 6월 6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모름’은 죄업의 변명이 아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

누군가 피해입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나와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

변명 뒤에 감춰진 ‘악의’
피치 못해 짓는 죄보다
죄업의 두께 두꺼워

악업과보는 반드시 돌아와
어리석음 버리고 참회하길

업에 관한 강의를 마칠 때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나온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의 출처는 〈밀린다왕문경〉이다. 그리스인 메난드로스왕이 인도 현자 나가세나 스님에게 물었던 한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존자여, 당신들은 ‘모르고 살생을 하는 자는 알고 살생하는 자보다 한층 중대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비유를 든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어머니가 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 여럿을 키우고 있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신용카드는 당연히 정지됐고, 이웃이나 일가친척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일하러 나가고 싶지만 어린 아이를 맡길 곳도, 맡길 돈도 없어 속수무책 도리 없이 굶고 있는 중이다.

며칠 째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 어머니는 집밖으로 나갔다가 빵집 앞을 지나게 됐다. 활짝 열린 빵집 안에는 오븐에서 막 꺼낸 빵이 푸짐하게 놓여 있었다.

‘저 빵 한 덩어리만 우리 아이들 먹였으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돈이 없으니 살 수는 없고, 훔치려니 그건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이란 걸 어머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 빵집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어머니는 빵 몇 개를 움켜쥐고 달아났다.

이런 경우가 알고 짓는 죄다. 물론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건 절도죄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행동이 악업이요 범죄라는 걸 알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처절하겠는가. 어쩌면 어떻게든 빵값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아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함부로 저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열린 점포를 기웃거리며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지고 나오고, 배고픈 어머니의 경우와 달리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하는 경우다. 이런 자의 행위는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금 행위가 잘못인 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며 점점 더 대담하게 저지를 것이다. 모르고 짓는 죄의 경우다.

모르고 짓는 죄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게 잘못이며 죄요, 악업인 줄 ‘왜’ 모르는가?

둘째, ‘정말’ 몰랐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죗값이, 악업에 따른 과보가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어리석음이다.

요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일들이 심상치 않다. 하나의 사건 뒤에 너무나도 엄청난 부정과 부조리와 비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권력자의 비호, 마약 상습 복용, 무단으로 찍고 돌려보는 동영상들, 한번 적발됐을 때 ‘사죄하느라 힘들었다’ 며 웃어대는 무개념, 우리는 이런 짓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무단으로 찍은 동영상을 구하려고 눈이 벌게진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들려온다.

어리석기가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안다면 그리할까. 바로 그 모름이 죄라는 걸 일러줘야 할 차례다. 어리석음의 죗값이 얼마나 큰지 똑바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社 說

소외계층 돌보는 봉축 맞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준비에 한창이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행이 눈길을 끈다.

서울 조계사가 장애인법회를 여는 가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열 예정이다. 또 공익캠페인 행복바라미도 시민참여형으로 전개된다. 이밖에도 봉축주간에는 독거어르신, 한부모자녀,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나눔이 펼쳐질 예정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타행을 통해 세상을 정토로 가꾸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주변의 이웃까지도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법을 알려주셨다.

자리이타행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대중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길 발원했다. 하지만 현재 불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연중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될 일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난으로 영세점포가 줄지어 폐업하고, 청년층의 취업난도 가속화되고 있다. 독거어르신들 또한 증가 추세다.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오신날이야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날이었으면 한다.

사찰 곳곳마다 하나둘씩 봉축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이제 등불을 밝히듯 마음에도 심지를 돋아 자비광명을 비추는 참불자가 되길 바란다.

도로표지판 복구는 ‘사필귀정’

2017년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사찰명을 삭제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사건이 조계종의 오랜 노력 끝에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 사건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단 네 글자로 평가된다.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명이 삭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주관부처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단순히 현행 관리지침에 맞지 않고, 민원이 제기됐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문제없이 표지판에 사찰명이 명기됐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았고,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안내가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관리지침이 개정된 2003년 이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과 사적지, 경승지 등을 표지판에 명기할 수 있었기에 ‘잘못된 지침 개정’ 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계종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협조를 얻어 국토부를 방문하고, 관리지침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모호한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도로공사 측도 철거를 잠정 중단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년 가까이 문제가 된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사찰명을 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까지 안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으로 제고하고, 후대에 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텃밭으로 지구를 지키자

봄이 왔다. 봄이 온 걸 가장 가까이 느끼는 곳은 우리 집 베란다이다. 곳곳에 벚꽃, 개나리, 동백 등이 피어나는 바깥 풍경보다 더 빠르게 우리 집 베란다엔 봄이 온다. 봄꽃을 보기엔 이르다 싶을 때, 어느새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화분의 흙을 쏟아 붓고 분갈이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이번 봄도 어김없이 집에서 가까운 꽃시장에서 꽃모종을 사서 심었다. 조만간 방울토마토, 상추 등도 심고 키우게 될 것이다. 유치원 다닐 때 작은 농부상을 받았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식물을 가꾸는데 열심이다. 다육이, 선인장, 벤자민, 산세베리아, 파키라, 베고니아 등 수많은 화초와 나무에다 올 봄에는 소철까지 목록에 더해져 베란다 한 곳에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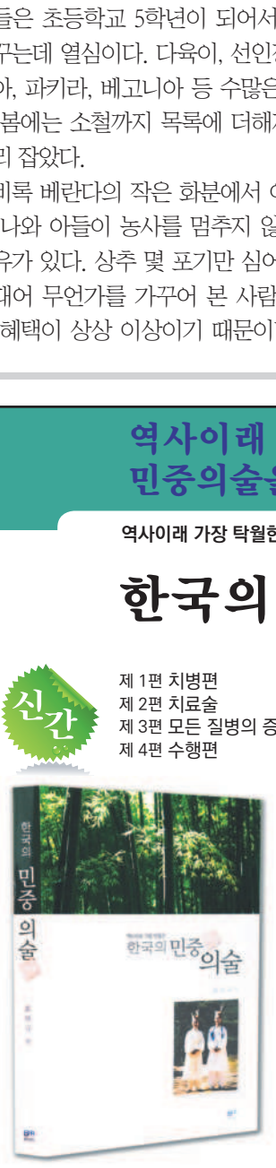
비록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지만 나와 아들이 농사를 멈추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상추 몇 포기만 심어 가꾸더라도 흙에 기대어 무언가를 가꾸어 본 사람만이 아는 즐거움과 혜택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날로 푸르러지는 식물들을 보면 햇살, 바람, 비, 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게 되어 자연 앞에 겸손해지고 공생의 도리를 체감하게 된다.

그런데 위대한 자연의 힘을 먹고 자라서인지 베란다에서 자라는 식물의 힘도 무시 못 한다. 푸른 잎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내뿜는다. 베란다 채소밭이나 미니 정원을 가꾸기만 해도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 작은 텃밭 하나가 오염된 지구를 정화시키는 산소 알약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텃밭이 이상 기온,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여러 지자체나 환경단체, 학교 등에서 베란다 텃밭, 도시 농업, 학교 텃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텃밭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화분 하나로 주머니 텃밭, 상자 하나로 상자 텃밭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텃밭으로 이산화탄소량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유치원, 학교 등에서도 생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며 꼬마 농부와 어린이 농부를 길러내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텃밭 가꾸기는 흙, 생명과 교감하는 정서를 길러내는 것은 물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까지 알게 해 주어 교육 효과가 크다.

그렇다면 베란다 텃밭으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얼마나 될까? 베란다 텃밭에서 1년간 수확하는 양을 평균 100g이라고 생각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삭감하는 수식에 대입시켜 보면 1년에 1억660만kg을 줄일 수 있다. 이 수치는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인 우리 집을 어느 새 산소 가득한 숲 속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곳곳에서 키우는 작은 나무 한 그루들이 모인다면 그 작은 나무들이 급격히 사라져 가는 숲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상상도 해보게 된다.

이 봄이 가기 전, 아픈 지구를 위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집이나 사무실에 들여 보길 권한다.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오는 계절을 따라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찾아 올 것이다. 그건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선물일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친년의 보배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떨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 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아픈 중생 고통 어루만지는 '화엄의 꽃'



부산 화엄회는… 1999년 4월 창립된 부산경남지역 병원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회원은 42명이며 전원 비구니 스님들이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병원법당 운영을 위해 결성한 모임이었다. 현재는 부산대병원 환우 돕기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후원, 네팔 장학금 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 및 봉사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 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미얀마 학교 건립 불사에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道伴의 향기 부산화엄회

글=김주일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우리는 20년 봉사 도반

1999년 4월부터 봉사 시작해
부산경남지역 병원 봉사단체
현재 42명 비구니스님이 활동
부산대 병원 환우돕기에 주력

1년에 한번 초파일 공양 행사
형편 어려운 환자 수술비 후원
군불교 및 네팔 장학금 지원도

"어려운 환우들에게 수술 지원금을 후원할 때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이 큽니다. 그 뒤에 후원 환자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법담을 나누는 우리 화엄회 도반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소중하고 좋습니다." 〈서운암 주지 상영 스님〉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화엄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을 당시 미얀마 마궤이주 낫마욱에 오보중학교를 회원들끼리 함께 모연해 지어 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새로 지어진 학교에 다닐 설렘에 가득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前 화엄회 회장 현수 스님〉

"화엄회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회원 스님들이 함께 가서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도반의 향기를 말으며 같이 성장 발전해 온 것이죠. 또 한가지는 53사단을 방문해 음향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군 포교 활동을 펼친 것입니다. 매달 군장병 불자들을 위해 정성껏 자장면을 대접하면, 맛있게 먹던 젊은 군장병들의 즐거운 표정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모든 봉사행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라서 가능한 일들이었죠." 〈반야선원 주지 수현 스님〉

"부산대 병원 봉사를 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한 거사님의 손이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었죠. 불자분이라 저희가 기도를 해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거사님 부인이 찾아와 뵙기를 요청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기도 덕분에 거사님 손이 펴져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다 되어가니 자신 보단 그동안 고생한 자기 집사람을 위해 저보고 기도 해달라"고 요청 합디다. 가족애가 진하게 느껴진 그 감동스런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화엄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우리 회원 스님들은 어느 곳으로 봉사 활동을 가도 상을 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이죠. 정기적인 나눔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외국인과 병원 환자)의 소식을 접하면 그 자리서 대부분 십시일반 모아 정성껏 후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원력을 세우면 모두 이뤄지고 가능해져 행복하죠." 〈연화사 주지 성안 스님〉

병환의 고통으로 생과 사의 막다른 길목에 있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그래서 병원은 늘 멀리하고만 싶다. 아니 솔직히 말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회원들끼리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심신이 나약해진 환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병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화엄회 회원 스님들이다. 그 중심에는 초대 회장을 거쳐 현 회장으로 부산 비구니 스님들의 봉사 모임인 화엄회를 이끌고 있는 상화 스님이(부산 천태암 주지)이 있다.

화엄회는 창립 이후 줄곧 20년 동안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산대 병원서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하는 연꽃 등과 후원물품 나눠주기 행사 및 환우들을 위한 공양 행사를 펼친다. 회장 상화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덕이 가장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연꽃에 새겨 병마로 고통받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환자들이 스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하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환자분들에겐 문전박대 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진심들이 전해졌는지 이제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우리 회원 스님들에게 스스럼없이 합장할 정도로 반겨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쾌유 발원을 위한 기도도 부탁하죠."

이는 오랜시간 우여곡절을 함께 겪으며 독려하고 봉사 활동을 펼쳐온 부산화엄회 소속 스님들이라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1999년 4월 창립된 부산화엄회는 부산경남지역 병원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회원은 42명이며 전원 비구니 스님들이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병원법당 운영을 위해 결성한 모임이었다. 현재는 부산대병원 환우 돕기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후원, 네팔 장학금 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 및 봉사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 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미얀마 학교 건립 불사에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봉사에 나오는 스님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교대로 전 병실을 돌며 심신이 지친 환자들의 손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용기를 북돋워준다. 정기적으로 쾌유 기도도 해준다.

특히 1년에 한번씩은 부산대병원 환자들과 용역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어주며 광수 공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 5명을 선정, 치료비 지원도 해줬다. 이외에도 회원 스님들은 한달에 한번씩 매월 음력 19일 정기 회의를 하는데, 이때 해외 국가재난과 불교계의 큰 불사나 행사 소식을 접하면 십시일반 후원 모금을 통해 돕기도 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고치현 순례 사찰 (하)

B5
문화
'한국의 명인명무전' 100회 '名不虛傳'

B6
학술 · 문화재
동국대 세불연, 울산대 원효硏 세미나

“20년 자비행, 함께여서 즐거웠다”



2015년 12월 1일 미얀마 빤따노 오보중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부산 비구니 화엄회 봉사단의 모습. 화엄회는 학교 교실 건립 후원에 동참했다.


부산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이 부산대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비구니 봉사단 부산화엄회가 봉축을 맞아 병원 환우들에게 연꽃등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였다.

‘부산화엄회’ B1면에서 계속

재무를 맡고 있는 탄준 스님은 “역대 모든 회장 스님과 선배 스님들의 보시 봉사행에 대한 솔선수범 정신이 있었기에 20년 동안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불협화음없이 모임이 지속돼 온 것 같다”며 “창립 당시 선배 회원 스님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는 그 분들의 감동스런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여법하게 우리 화엄회가 건재한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부산대 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성봉 스님도 “부산대 법당과 인연이 된지 이제 만 3년째 됩니다. 화엄회 회원 스님들께서 하시던 활동을 이어받아 불법을 환우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 쾌차 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 병원 환자분들중에는 신심있는 불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불교계 신문과 잡지, 사경집 등을 전해 드리죠. 어떤 환자분은 무비 스님의 〈당신은 부처님〉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자신이 가끔씩 진료를 가는 서울 아산병원 법당에 법보시를 100권 하기도 했죠.” 현재의 병원 법당 포교 상황을 설명하는 성봉 스님의 얼굴에는 보람을 나타내는 환한 미소가 흘렀다. 성봉 스님의 병원 법당 포교 스토리는 계속 이어진다. “가끔씩 염주도 환우들에게 힘내라고 전달하는데, 한 번은 병원 약국서 염주를 차고 밝게 인사하던 환자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작은 염주 하나도 아픈 환우들에겐 큰 의지처가 되는 구나 느꼈죠. 이 모든 건 우리 화엄회 스님들이 20년 전부터 이어 온 활동이 씨앗이 되어 큰 결실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는 화엄의 꽃들입니다”라고 화엄회를 평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화엄회 스님들의 자비행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2013년부터는 미얀마에 학교 짓는 교육 후원 불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화엄회는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이면 지구촌 어디라도 구호의 손길을 펼치려 한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차고 넘치는 화엄세계의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영남 지역의 모범 승가 단체라는 칭찬이 왜 지역불교계에서 입소문으로 불자들에게 잔잔하게 전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현 회장 상화 스님은 2015년 12월 1일 미얀마 학교 교실 건립 완공식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단 4명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미얀마의 교육 현실은 열악하다. 긴 이동거리와 열악한 가정형편 탓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상업 중심지인 양곤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에야와디주의 한 오지마을 빤따노. 이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경사가 있는 날이었다. 부산화엄회가 이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교실 건물 2채를 지어준 날이기 때문이다. 온 마을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화엄회는 빤따노 지역의 바잉지따이꽁 고등학교에 교실 4칸의 건물을 짓는 데 후원했다. 스텝이 탄 차량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학교 정문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학생들이 일행을 둘러싼 가운데, 스님이 테이프를 자르자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더불어 학생들과 마을주민의 기쁨에 찬 박수소리도 울려 퍼졌다.

미얀마 교육불사에 동참

2013년부터 해외 구호에 관심
미얀마 교육 환경 현실 열악해
더프라미스 통해 후원금 전달
빤따노 지역 학교 교실 불사도
화장실 수리, 책 · 걸상 등 지원

회장 상화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모두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던 중에 더프라미스와 인연이 돼서 교육 불사에 동참하고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화엄회를 대표해 당시 회장인 현수 스님도 빤따노 지역 오보중학교에 교실 3칸과 야외 화장실, 책걸상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화엄회 스님들이 전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미얀마 아이들에게 배움과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채워주었다.

부산화엄회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지만, 매달 각 사찰의 행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사찰 운영과 포교에도 유익하다는 게 회원 스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또한 회장 상화 스님과 어른 스님들이 가끔씩 전국비구니회와 종단 소식도 전해줘 불교계를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자세 등도 조언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큰 도움이 된다고 회원 스님들은 환희심을 내비친다.

마지막으로 화엄회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대중이 함께 살면 대중의 힘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소임을 살면 선방 가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 화엄회 회원 선후배 스님들을 뵈면 다시 발심 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원 스님의 사찰에 축하 할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함께 동참해 서로 장엄이 되고,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땐 위로와 격려로 용기 나게 하는 도반의 정이 듬뿍 넘쳐 나는게 바로 우리 화엄회입니다”라고.

창립 20년 맞은 부산화엄회 활동

1999년 4월 부산대 병원 법당 후원 및 봉사 시작
2000년 5월 삼척시 화재민 위문 및 후원금 전달
2009년 1월 부산대 양산병원 법당 점안식 후원
2009년 3월 부산대병원 법당 부처님 개금 후원
2009년 8월 53사단 자운사 군법당 단청불사 후원
2011년 2월 연무대 법당 불사 후원
2011년 11월 불우 환자 지원금 전달
2012년 7월 영은사 화재 위로금 전달
2013년 5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지원금 전달
2014년 2월 미얀마 중.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4년 2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4년 7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건립 후원
2015년 5월 네팔 지진 후원금 지원
2015년 11월 미얀마 중 · 고등학교 학용품 지원
2017년 4월 군법당 누수 공사 후원
2017년 10월 포항지진 피해 성금 전달
2018년 12월 승보공양 대법회 공양물 후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아낌없이 주는 '오셋타이'서 온정 느끼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⑰ 고치현 순례 사찰 (하)



치쿠린지의 지장보살상들. 치쿠린지는 일본의 3대 문수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본당을 바라보는 선재동자상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필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다. 일단 점심을 대충 먹고서 참배하기로 했다. 납경소 옆으로 붙어있는 휴게소에 짐을 풀어 놓고 아까 받은 과자들을 꺼내 먹기로 한다. 마침 휴게소에 차를 마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시원한 차를 뽑아 먹으며 보니 작은 나무 그릇 안에 과자가 또 한가득 들어있다. 순례자들에게 간식으로 보시하는 과자라고 쓰여 있었다. 몇 개를 골라 와서 아까 받은 과자들과 함께하니 적당히 요깃거리는 돼 보였다.

출출한 배를 달래고 예불을 하러 나섰다. 중세로부터 번성해온 사찰답게 다른 절들과 비교해 본당이 크고 웅장했다. 대들보에는 '현불(懸佛)'도 걸려 있었다. '현불'이란 둥근 동판에 불상을 부조로 조각해 매달아 두는 것으로 제법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절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이다. 이곳 치쿠린지의 현불은 거의 3차원의 불상이 동판에 새겨져 있었다.

지혜의 본존인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일본 3대 문수도량이라니 예불을 올리는 마음이 좀 더 경건해진다.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이 지혜이니 그런 것이다.

정례로 예불을 올리고 문수보살의 진언을 오래도록 염송했다. 예전에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듣는데 "지혜에는 넓고, 밝고, 신속하며, 예리한 네 가지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지혜를 증장하는 데에는 문수보살에 의지하여 기원하면 좋다"고 이야기 하신 것이 기억났다. 예불을 올리면서 지혜의 4가지 특성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대사당으로 발걸음을 올리는데 나무 아래 작은 동자상이 본당을 향해 합장하고 서있었다. 어떤 동자상인지 궁금해 아래에 붙은 설명문을 보는데 '선재동자'라는 이름만 붙어있었다. 문수보살은 〈화엄경〉에서 선재동자의 53선지식 중 제일 처음 찾은 선지식이다.

문수보살께서 보리심을 일으킨 선재동자에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기 위해선 선지식들을 찾아봬야 한다고 말하고, 남쪽으로 구법을 떠날 것을 권하는 것으로 화엄경의 입법계품이 시작된다. 이때 선재동자가 문수보살께 법을 구하며 청하는 게송들은 언제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명문이다.

"묘한 지혜의 청정한 태양, 대비의 원만한 바퀴여. 눙히 번뇌의 바다를 말리니, 바라건대 조금이라도 저를 살펴보소서." (제5송)

결의에 찬 눈동자, 무엇인가 여쭈는 듯 살짝 열린 입술에서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는 열의가 느껴지는 동자상이었다. 그 표정이 좋아서 한동안 보고 있으려니 지나가던 사찰 신도가 말을 걸어온다.

"오헨로상! 이 아이랑 사진 찍을래요?"

순간 어떤 아이인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선재동자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냉큼 휴대폰을 건네 동자상 옆에 합장하고 섰다.

"이왕에 찍는 거 꼭 안고 찍는 것이 어때요?"

"아이고, 이 분은 불경에 나오는 보살님인데 어찌 감히 안고 찍겠습니까."

그렇게 선재동자와 사진을 찍고서 대사당의 예불도 마쳤다. 다시 배낭을 업고선 다음 사찰을 향해 길을 잡았다. 오르막은 급경사였던 반면, 내리막은 자연석을 적당히 다듬은 계단길이었다. 차도가 생기기 전엔 이 길로 오르내린 듯 제법 정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오랜 돌계단 여기저기 덮인 이끼가 미끄러워 몇 번을 헛디뎠다. 이러다가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겠다 싶어 일부러 계단 옆의 흙길을 밟고 내려갔다.

32번 젠지부지를 향하는 길은 꽤나 단조로웠다. 치쿠린지를 향해 걷던 시내 복판의 길과 비교해선 이상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한적한 길이라 오히려 적응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큰 오르막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편안한 길도 32번 가까이에 이르자 끝났다. 바닷가 옆에 우뚝 솟은 산 위에 32번이 있었다. 마치 벽을 마주한 듯 갑자기 나타난 등산로에 그만 기가 죽고 말았다. 거기에 등산로 입구부터 "살무사, 말벌 주의"라고 쓰인 간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쩌겠는가. '이 모든 게 수행이로소이다' 하곤 다리에 힘을 주고 등산로로 올랐다.

40분 정도 낑낑대며 산문에 이르렀다. 일단 참배고 뭐고 머리에 열기가 잔뜩 올랐기에 손을 씻는 곳에 냅다 머리를 박았다. 찬물이 머리에 닿자 뼛속까지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치쿠린지에서 점심삼아 먹은 과자는 진즉에 소화가 됐다.

日 3대 문수도량 '치쿠린지'
선재동자 합장 동상 바라보며
구법 향한 열정 · 원력 되새겨

순례길서 만난 일본 어르신
사정 듣자 1천엔 건네주기도
"베품, 오셋타이의 정신이다"

조금 더 힘을 내어 본당으로 올랐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아까의 노고가 한순간에 날아갔다. 바위산 위에 세워진 곳이라, 사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아담한 정취가 있었다. 예불을 마치고 납경소를 향하니 이곳도 순례자가 차를 마실 수 있게 정수기가 있었다. 산을 타느라 너무나 허기졌기에 배낭 안에 비상식량으로 넣어뒀던 컵라면을 꺼냈다.

라면이 익는 동안 납경을 받기로 하고 납경소에 들어섰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늘 목표인 33번 셋케이지까지 아슬아슬하다. 납경소에 부탁해 전화를 빌려 33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도보 순례자인데 오늘 납경시간까진 맞추지 못할 거 같은데 츠야도(순례자 숙소)를 써도 될지 물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늘 숙소 문제도 해결됐고, 납경도 받았다. 오늘의 큰 난관은 모두 넘은 셈이다. 납경소에 감사하다고 말하곤 나와서 후루룩 컵라면을 먹고 있자니 흰옷을 입은 노부부가 들어온다. 자동차로 순례를 하는 분들인 듯 했다. 납경을 받고 나오는 할아버지가 말을 붙였다.

"이보게 어디서 왔는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그 먼데서 여기까지? 장하구만,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하는가?"

"자는 건 노숙이나 젠콘야도, 츠야도를 사용합니다. 먹는 것은 적당하게 때우고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지갑을 뒤적여 1000엔을 건넸다.

"이 늙은이가 오셋타이하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이걸로 뭐 맛있는 거 사먹게."

그러자 옆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너무 많지 않냐"고 핀잔을 준다. 할아버지가 곧바로 호통을 친다.

"무슨 소릴 하는가? 이렇게 베푸는 게 오셋타이의 정신이야. 이렇게 걷는 순례야말로 진정한 대사의 모습이지!"

먹던 컵라면을 멀찍이 치워두고 두 분께 연신 감사하단 인사를 올렸다. 금전을 오셋타이로 받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출발했다. 급경사인 산길을 다시 내려가긴 싫어서 차도를 하산길로 잡고 내려간다. 33번 셋케이지를 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연락용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 다른 하나는 명승으로 유명한 카츠라하마(桂浜)를 경유해 다리를 건너는 길이다.

바다를 건넌다고 해봐야 30분 남짓하게 건너는 짧은 배다. 고치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운임도 별도로 들지 않는다. 처음에는 완전히 도보라는 것에 고집도 있고, 카츠라하마도 보고 싶은지라 도보로 가려 했는데 셋케이지에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 페리를 타는 루트로 정했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배로 건너가 순례를 계속하는 것이 전통적인 길이라고 한다.

어둑어둑해져 가는 주택가를 지나 셋케이지로 향하고 있으려니 폐점 전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빵집이 보였다. 아까 천 엔을 받은 것도 있으니 빵이나 사먹자 하고 들어갔다. 할인판매 중인 빵들로 골라 담아 계산하려니 아주머니가 빵 두 개를 더 집어 주신다.

"오셋타이입니다. 받아가세요."

오늘은 오셋타이가 참 많은 날이다. 빵을 감사히 받아든다. 33번 셋케이지에 도착했을 땐 벌써 5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전화로 들었던 곳으로 가니 츠야도가 열려 있었다. 오늘은 나만 쓰는 듯 했다.

배낭을 풀어 놓고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아가며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미치니 절로 손이 합장을 한다. 다른 생각 없이 그저 감사하단 말을 읊조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냈습니다. 내일도 힘내겠습니다."

〈자유기고가〉





“호흡 관찰, 마음 방황 되돌려 주는 닻줄”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존 카밧진 지음/엄성수 옮김/불광 펴냄/1만 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미국 메사추세츠대 메디컬센터에 스트레스감소 클리닉이 생기고, 이 책의 저자인 존 카밧진 박사가 소장으로 취임한 것은 1979년 경이다. 이때가 비로소 마음챙김 명상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시기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다. 마음챙김은 이제 적어도 서양에서는 주류(Mainstream)가 된 듯하다. 미국 심리 치료사 중 41퍼센트 이상이 치료법 중 마음챙김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병원 숫자만 따져도 300여 개를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는 750여 개가 넘는다. 학술지에 기재된 마음챙김 관련 논문은 매해 1천여 편을 넘어선다. 영국과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마음챙김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군대, 주요 기업, 프로 운동선수는 물론 연예인까지 마음챙김 명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심지어는 ‘산업화’ 논란까지 벌어진다. 미국 내 기업이 앞다투어 ‘마음챙김 명상’을 도입하면서 시장 규모가 10억달러(한화 1조 705억 원)를 넘었다는 ‘우려스런’ 보도 〈National Review〉 2018년 1월 1일자)도 나온다. 이런 마음챙김 명상 열풍의 첫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책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이다. 1993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이 책은 전작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에 이은 저자의 두 번째 저서이다. 전작은 저자의 표현대로 항해도였다.

스트레스와 질병, 건강과 치유에 대한 많은 정보 외에 명상법에 대한 폭넓은 지침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달랐다. 이번 책에는 스트레스나 통증, 질병 같은 당면 문제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과 그 활용법들을 간단히 또 쉽게 설명한다.

특히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받는 걸 싫어하지만,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여기저기 흩어진 약간의 힌트와 암시들만 갖고 조각그림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만한 책이다. 이런 연유로 이 책은 판매 면에서 전작을 압도했다. 미국서만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메가셀러가 되었고, 이미 전 세계 2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고 급기야 10주년 기념판에는 ‘THE NATIONAL BESTSELLER’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마음챙김 명상 교과서’라는 수식어를 달 만하다.

이 책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일상이 마음챙김이고, 마음챙김이 일상일 수 있다는 원리를 전문용어 하나 없이 말랑말랑하게 풀어 썼기 때문이다.

노자나 장자 같은 고전은 물론 사상가 소로우, 시인 월트 휘트먼, 릴케,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 등의 짤막한 글들을 인용해 그들이 가본 ‘어떤 길’, 그들이 실천한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음챙김과 다르지 않음을 보이며 독자를 설득하는 방식은 무척 친숙하다. 또한 저자 스스로 느낀 일상의 일들을 풀어 쓰면서 각각의 소제목 밑에 이어지는 ‘시도’는 독자 스스로 일상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 매뉴얼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음챙김은 무엇일까? 마음챙김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큰 알아차림과 명석함을 얻게 되고 매 순간의 현실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순간 속에서만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매 순간순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성장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마음챙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호흡에 주목한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의 숨을 쉰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 당신은 단 하나의 숨이라도 주목해 본 적이 있던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현재 순간에 묶어두고 마음이 방황할 때 되돌아가게 이끌어줄 닻줄과 같다. 호흡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상기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어렵지 않다. 호흡은 항상 우리의 코 바로 밑에 있다. 이외에도 이 책은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뛰거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집중하고 관찰해야 하는가를 친절히 설명해준다. 산이나 호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도 하고 또 육아나 설거지처럼 자신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챙김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챙김 손쉽게 하는 법은 호흡 집중
마음챙김 일상으로 안내하는 ‘교과서’
읽고, 느끼고, 실천하는 순서로 구성

이 책은 다른 자료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본문을 읽으며 ‘아하’ 하는 순간을 느끼면 되고 본문 말미에 있는 ‘시도’는 일상 속에서 아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가볍게 실천할 수 있다.

우선 1부에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챙김을 새로 시작하거나 더 강화해야 하는 근거와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독자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의 삶 속에 마음챙김을 도입하는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어 2부에서는 격식을 갖춘 명상 수행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살펴본다. 격식을 갖춘 명상 수행이란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특정 방법들로 마음챙김 및 집중 능력을 배양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마음챙김의 다양한 활용법과 관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1, 2, 3부의 일부 장들의 끝부분에는 격식을 갖추거나 갖추지 않은 마음챙김 수행의 여러 측면들을 자신의 삶 속에 통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온다. 마음챙김 명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맞춤인 책이다.

▲저자 **존 카밧진**은?

과학자이자 작가이며 명상 전문가다. 메사추세츠 대학 의과대학의 의학부 명예교수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클리닉(1979)의 설립자이다. 그가 개발한 MBSR은 세계 각국의 기업, 병원, 학교, 교도소, 군대, 프로스포츠 팀 등 곳곳서 활용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의료계뿐 아니라 뇌 과학,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동안 인지 행동 치료 협회가 수여하는 뛰어난 동료상(2005), 통합 의학 브레이브웰 자선 협회가 주는 통합 의학 개척자상(2007),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인지과학센터가 주는 마음과 뇌상(2008) 등을 수상했다.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온정신의 회복〉 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2011년에는 영국서 발행하는 〈왓킨스 리뷰(Watkins Review)〉에 의해 ‘현존하는 인물 중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종합의학 학술센터의 컨소시엄 창립 의장이며, 각자의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깊게 이해하고 정신과 감정, 그리고 실제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와 서양 과학자들 간의 대화를 조직한 정신생활연구소 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현재 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우리 마음속 깊이 잠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살아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결국 우리는 덫에 걸린 듯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활용해보다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까지 잃게 된다.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덫에서 빠져 나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길을 제시해준다.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삶의 질과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길,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비롯해 일과의 관계, 보다 큰 세상 및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특히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길이다.

▲당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마음챙김 명상 수행의 초대장으로 활용해 보라. 현관문 쪽으로 가거나, 전화를 받거나, 집 안에서 얘기를 나눌 누군가를 찾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건조기에서 세탁물을 꺼내거나, 냉장고 쪽으로 가거나 하는 일들이 전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기나 현관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내면의 감정들을 잘 살펴보라. 대체 이전 순간에 살고 있던 삶에서 끌려 나와야 할 만큼 그리 다급하게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변화들이 좀 더 우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걸까? 늘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좀 더 존재할 수는 없는 걸까?

▲샤워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 일 같은 걸 할 때 그걸 위해 존재하도록 해보라. 샤워를 할 때 정말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피부에 물이 와닿는 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 샤워는 완전히 잊은 채 다른 어딘가에 가 있지는 않은가? 음식을 먹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이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인식하는가? 당신은 계속해서 자꾸 당신의 하루 전체를 존재하기 위한 기회로 또는 당신 자신을 현재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을 짜증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드는 상황에서 당신의 반응들을 살펴보라.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당신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나 잘 보라. 그런 경우야말로 마음챙김을 가지고 냄비처럼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이라는 냄비 안에 당신의 모든 감정들을 집어넣고 그저 그것들과 함께하면서 그것들이 천천히 익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당장 그 감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그 감정들을 마음챙김이라는 냄비 안에 집어넣고 있을 때 보다 잘 요리되고 보다 잘 소화되고 보다 잘 이해된다는 걸 상기하라.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명무·명창’ 몸짓으로 보는 3·1운동 1백년

‘한국의 명인명무전’ 100회 ‘名不虛傳’
국립국악원 예악당 3월 26~27일
송법우 스님, 정명숙 등 120여 명 출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명무와 명창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조명하는 무대가 열린다. 동국예술기획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저녁 7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국의 명인명무전’ 100번째 무대인 ‘명불허전’을 개최한다.

우리 춤과 소리로 전통예술의 계보를 잇고 있는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999년 11월 ‘우리 전통의 원형보존과 전승’이라는 전통가치를 표방하며 우리 춤의 뿌리를 지키고 춤과 소리의 절대적 정신성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전통예술의 무대다.

100번째를 맞는 이번 ‘한국의 명인명무전’의 무대는 ‘명불허전’이라는 제목으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각별한 의미를 찾는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무대다. 독립선언문 낭송과 영상, 춤이 음악으로 변주되는 입체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

백시향(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의 독립선언문 낭송으로 시작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명맥을 잇고 있는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통영살풀이춤 인간문화재 엄옥자, ‘열사가(烈士歌) 소리꾼’으로 불리는 무형문화재 정순임 명창, 피리독주(상령산) 인간문화재 정재국, 승무 인간문화재 송법우 스님, 평양검무 인간문화재 임영순, 대금독주(팔도아리랑)인간문화재 이생강, 가야금병창 인간문화재 강정숙, 고깔소고춤 인간문화재 정인삼, 입춤 인간문화재 최윤희, 살풀이춤 단국대학교 교수 김지원 등 원로와 중견무용가 120여 명이 출연한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발표무대가 넉넉하지 않은 전통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온 것은 물론 신예와 중견 그리고 원로 예술인이 한 무대에서 과거와 현재, 내일의 꾸준한 맥을 잇는 전통무대의 전범이 된지 오래다.

그 동안 3천여 명의 원로와 중견, 신인들이 ‘한국의 명인명무전’ 무대를 통해 예술혼을 실현했으며, 150여 개 종목의 전통춤과 소리를 통해 우리 춤사위와 소리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또한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비롯해 해외(일본, 중국, 몽골, 미국 등) 무대에서도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꾸준하게 전파해왔다.


승무 인간문화재 송법우 스님의 승무.


이매방류살풀이춤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00회를 이어오는 동안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동인 명무 故 김천흥을 비롯해 한 시대의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판소리 명창 故 박동진, 명무 故 김계화, 일인창무극 故 공옥진, 명무 故 이매방, 배뱅이굿 故 이은관, 여창가곡 故 김월하, 가야금병창 故 박귀희 등 우리 전통예술의 전설적인 별들이 거쳐 갔다. 또 그 예술인들이 30년 역사의 전통무대 가치를 빛내왔다. ‘인간문화재 대전’, ‘무형문화재 대전’ 등 한 때 문화재청 등에서 주관하여 전통예술의 명맥을 이어가던 공연들도 지금은 맥이 끊겨 ‘한국의 명인명무전’만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유일한 무대가 되었다.

동국예술기획은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과 제100회 ‘한국의 명인명무전-명불허전’의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문화융성의 초석을 위한공연으로, 민족의 한과 설움을 춤으로 승화한 우리 춤과 어울려 낭만과 감성이 흐르는 이 봄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찾는 서울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입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3만원. (010)4762-4333.

양산 3·1만세운동 이끈 스님들 흔적

특별기획전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
양산시립박물관 3월13일~6월 2일
양산 만세운동 · 임정 초기자료 대거 공개
성해, 만우, 만해 스님 관련자료 공개

100년 전 경남 양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3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기획특별전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3.1만세운동의 주축이었던 지방유생들이 통도사 성해선사의 회갑을 축하하며 1914년에 쓴 시와 기념사진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 자료에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오택언을 비롯하여 윤현진, 박민오 등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어 독립운동사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만해 스님이 통도사 강사 시절(1918년경) 쓴 친필 6곡 병풍과 오택언(당시 통도사 지방학림 동기)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신평장터에서 김상문, 이기주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만우 스님(양대응, 1897~1968)의 각종 유품 50여 점과 구하 스님 독립자금문서도 최초 공개한다.


만우 스님 유품. 서적, 가방 등



성해선사 회갑연 기념사진. 1914년.

그 밖에도 김구 선생의 친필 유묵,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차장이었던 윤현진의 유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태극기 등 총 150여 점의 양산 독립운동 자료를 선보인다.

양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3월 13일, 통도사 지방학림 유생 및 시민들의 만세를 시작으로 경상도 지역 독립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서울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오택언이 만해 스님의 지시로 통도사로 내려와 강원의 대표들과 만나 만세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고 1919년 3월 13일 신평마을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전시는 총 4부로 1부는 ‘3월의 그날’로 3 · 1운동의 배경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2부는 ‘양산의 3 · 1운동’으로 통도사 지방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신평만세운동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산장터 만세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3부는 ‘3 · 1운동 그 후’라는 주제로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우리역사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상해임시정부의 수립과 역할, 김구, 윤현진 등 주요 인물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 4부에는 ‘3 · 1운동을 생각하다.’로 당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못했거나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희망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구성으로 마련했다.

신용철 관장은 “그동안 양산의 만세운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는 충분한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은 탓이 크다”며 “모든 시민들이 전시실에서 들려오는 100년 전 양산의 울림을 되새겨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92-3323.

박재완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전시해설프로그램
‘문화재 돋보기’ 3월 27일~11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3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화재 돋보기’를 진행한다.

‘문화재 돋보기’는 박물관 야간 개장(오후 9시까지)에 맞추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담당자의 전문적인 해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3월 27일 ‘신라고분과 황금문화재’를 시작으로 11월 27일 ‘관세음보살’ 전시해설에 이르기까지 신라를 주제로 한 8회차의 교육과 특별전 ‘페르시아’의 전시해설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 돋보기’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 및 고대왕국 신라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당일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해당 전시관 입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054)740-7500.

박재완 기자



“붓다·원효의 길, 새로운 인문 지평”

동국대 세계불교硏, 울산대 원효학硏 공동 세미나

박태원 교수, 원효 一心 분석
분별 해제 · 차이 만나는 마음
원효가 성찰한 깨달음 문제는
언어·사유·차이 범주 내 접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이 보인 깨달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과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소장 박태원)는 3월 16일 동국대 만해관에서 ‘분황 원효와 깨달음 담론의 구성(Ⅱ)’을 주제로 제3차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붓다와 원효의 깨달음을 비교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원효학토대연구소장)는 ‘원효의 일심과 깨달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태원 교수는 원효 스님의 일심을 “‘본체 · 현상 존재론’으로 접근하는 한 우파니샤드의 사유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독법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효의 글에서 ‘일(一)’은 수사용법이 아닌 무겁고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효가 ‘일(一)’이라는 부호에 자신의 모든 성찰과 체득을 압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나 형용사가 아닌 ‘동사적 국면’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

박태원 교수는 “원효은 ‘일(一)’이라는 기호에 다른 용어를 결합하며 ‘일(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다”며 “‘일(一)’에 ‘하나처럼 통하는’이라는 번역어를 대입하니 일관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태원 교수는 붓다의 법설의 핵심이 “깨달음이나 해탈의 이로움을 누리려면 차이들과 만나는 관계능력을 바꿔야 한다”는 ‘육근수호 법설’에 있음 상기시키며, 이를 원효의 일심과 비교했다.



박태원 교수가 밝힌 원효 스님이 설한 일심의 정의는 ‘허구적 분별의 장벽을 해제하면서 차이들과 만날 수 있는 마음 능력’이다.

이에 대해 그는 “차이들과 만나는 언어와 사유의 이로운 능력과 지평을 여는 마음의 힘, 그것이 일심”이라고 설명하며 “붓다와 원효의 길은 ‘언어 · 사유 · 차이들의 존재의 집’인 인간이 근원적 안락과 자유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붓다와 원효가 보인 길은 새로운 인문 지평으로, 이는 지금 생동하는 인문학의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게 박태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불교에 대한 원효의 성찰과 체득은 깨달음의 문제를 언어 · 사유 · 차이의 범주 내에서 접근하게 한다”면서 “원효는 다양한 맥락에서 불교 언어들을 종횡으로 서로 엮어가면서 이 같은 안목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붓다와 원효의 언어와 통찰이 박제화 돼 있다면 이는 언어 · 사유 · 차이와의 접속 고리를 끊어버리는 해석 때문”이라며 “이 접속 고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교학을 비롯해 보편지혜를 탐구하는 모든 인문 학인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깨침 혹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붓다의 깨침과 원효의 깨침(고영섭, 동국대) △원효의 보살수행단계 해석에 나타난 깨달음의 의미(김준호, 울산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닦음과 깨침(최건업, 동국대) △원효의 수행론에서 나타나는 자리행과 이타행의 공속성(강찬국, 울산대) 등이 발표됐다.

불교유산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은

내포문화사업단, 3월 28일 학술세미나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 내포문화권을 대표하는 성보문화재다.

가야산 불교문화유산으로 내포문화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내포문화사업단(공동대표 정범 · 신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은 오는 3월 28일 오후 1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야산은 일찍이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인도를 비롯해 중국 · 일본과 불교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해상교역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경주 남산 못지않게 불교문화가 크게 융성했다. 가야산에는 백제 마애불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의 하나였던 보원사지를 비롯해 가야사지 · 수정암지 · 적조암지 · 보현사지 등 수많은 폐사지가 남아 있다. 또한 개심사 · 일락사 등의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조명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는 ‘내포 가야산 불교문화의 위상’을 주제로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1부 ‘가야산 중심사찰 보원사의 역사문화적 위상’, 제2부 ‘내포 가야산의 불교문화유산과 활용방안’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제1부에서는 ‘보원사의 역사문화적 의의’(김방룡 충남대 교수), ‘해양 실크로드와 보원사의 위상’(강희정 서강대 교수), 제2부에서는 ‘내포 가야산 사찰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박범 경성대 교수), ‘내포 가야산의 옛 절터 위치와 특성’(한기홍 서산역사문화연구소장), ‘내포 가야산 불교문화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활용방안’(김선임 내포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이 발표된다.

내포문화사업단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포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라면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을 조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환경 발굴 · 연구 실무 이해 돕는다

경주문화재硏, 안내서 발간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하는 조사자들의 고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고환경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현장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고환경 연구는 발굴조사만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옛사람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번 발간된 〈고환경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현장 안내서〉는 출토되는 유기질 유물을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 조사자들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고환경 연구팀’은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물의 수습과 분석, 연구에 이르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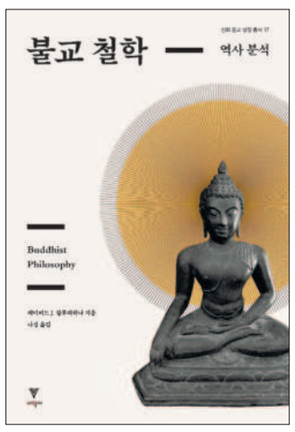
안내서에는 △고환경 연구의 필요성 △조사 전 계획수립과 점검사항 △목재 · 씨와 열매 · 미화석 · 사람과 동물 뼈의 실제 수습과 보관 방안 △토층의 이해 △고환경 연구의 방향 등을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있는 그대로’ 불교를 고찰하다

주목! 학술서
〈불교 철학-역사 분석〉

초기불교 철학적 측면 조명
다변화된 사상 큰 줄기 확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붓다의 말대로 그의 근본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붓다의 사후에 불교의 각 학파들은 자신들이 붓다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교의에 따라 붓다의 근본 가르침을 해석해왔다. 인도에서 동아시아까지 전파된 불교는 그 과정에서 종교적 가르침이 강조되며 내재된 철학적 가치가 등한시 돼왔다.

최근 발간된 초기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故D.J.칼루파하나(1936~2014)의 〈불교 철학- 역사 분석〉은 대승과 소승으로 나눠지기 이전의 초기불교를 주목한다. 정확하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철학적’ 측면이다. 저자는 초기불교가 가진 철학적 풍부함에 상시시키고 이를 통해 불교의 세계 종교적 측면을 재정립하려 한다.

저자는 그간 대승과 소승의 구도 속에서 각각 다르게 이해된 불교 사상에 새로운 흐름을 부여한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인도의 사상적 배경 속에서 불교가 발생하게 된 철학 · 종교적 맥락을 개괄하고, 붓다의 인식론 · 존재론 · 윤리학 · 연기 · 업 · 윤회 · 열반과 같은 교의를 통해 초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한다. 이러한 작업은 붓다가 감각 및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경험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모두 거부했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었다.

제2부에서는 붓다의 사후에 변화하기 시작한 불교 사상을 추적한다. 먼저 저자는 학문주의 성향을 갖는 부파불교의 상좌부, 설일체유부, 경량부가 아비달마 문헌에서 보여주는 각기 다른 철학적 해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파불교와 초기불교의 관계, 대승불교 발전의 기여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 같은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학파의 해석이 덧대어지며 다변화된 불교 사상의 큰 줄기를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불교 철학을 살펴보는 이 책은 대승과 소승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그간 수용된 불교 관념들에 독창적이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실제 저자는 “많은 서구 학자들이 ‘열반’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도의 수행주의 전통과 붓다의 요가 수련 경력을 설명하며 “열반은 정의나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역시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한 입장에서 저자의 견해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다. 하지만 복잡한 역사, 다변화된 사상 등을 넘어 ‘있는 그대로’ 불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견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민 기자

도덕·윤리교과서 불교 서술 점검

불교사회硏 · 강창일 의원실 3월 27일 세미나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편찬된 현행 초 · 중 · 고 도덕 · 윤리 교과서의 불교 서술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와 강창일 국회의원실은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중고 도덕 · 윤리 교과서 불교 관련 서술 내용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불교계가 요구한 사안들의 반영 여부 확인과 향후 개선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김완수 이리 부송초 교사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불교 관련 내용 분석 및 적용 방향 고찰’을, 김은미 전주교대 강사가 ‘중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 돌아보기-불교 이야기가 있는 도덕 수업을 위해’, 신희정 창원 중앙고 교사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를 각각 발제한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박영주 울산 무거초교 교사, 허남결 동국대 교수, 김호귀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초중고 교과서 검토 사업을 진행,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불교관을 정립하고자 진력해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도덕 · 윤리교과서의 불교에 관한 내용과 서술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하는지를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어느 길에서

산꼭대기 작은 암자 들러
절 세 번에 많이도 바라고
하산은 부끄러워
길 끝서
마주친 나무 한 그루 뒤엔
그리운 것들
아쉬운 것들
미안한 것들
그래서 가슴을 흔드는 것들
발등의 불을 끄듯
걸어온 길들이여
다시 길 끝서 그 길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㉙ 구상 시인 (상)

사형수 양자 삼은 구상 시인은 '聖者'

내 평생에서 가슴에 가장 짙게 남아있는 이를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꼽을 사람이 있다. 시인 구상(1919~2004) 선생이다. 나는 아직도 구 선생과의 인연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긴다. 그토록 소중한 인연을 사형수가 맺어줬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구상 선생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2번 오른 시인이다. 그의 작품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또한 프랑스 문인협회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시인으로, 우리 시단 최고의 명사다.

나는 그를 '성자(聖者)'라고 부르고 싶다. 그 어떤 수식도 그에게는 모자랄 것이다. 구 선생은 떠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남았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와의 이야기를 고인의 작품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 시대 다시없을 성자, 구상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간다.

이윽고 저 장밋빛 황혼처럼
나의 이승의 노을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마저도, 이 저녁엔
소년 적 해질 무렵이면 찾으시던
어머니의 그 부름, 그 모습처럼
두렵기는커녕 도리어 기다려진다

– '어느 비 개인 석양' 중에서

어느 눈 오는 날, 나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를 찾았다. 구상 선생이 묻힌 곳이다. 열댓 번도 더 간 묘소지만 백설이 덮여있으니 찾기가 어려웠다. 선생의 묘소에 섰다. 꽂혀있던 꽃은 많이 시들어있었다. 새로운 꽃으로 바꾸고 포도주를 한 잔 올렸다. 스님인지라 세속의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고인에게는 스스럼없이 참배했다. 합장(合葬)한 선생의 부인에게도 한 잔 올렸다.

그때 떠오른 시 한 편이 '어느 비 개인 석양'이다. 투병 중인 지금의 나처럼 구 선생이 건강이 많이 나쁠 때 쓴 작품이다. 구 선생은 죽음이 기다려진다고 했었다. 두 시간 가까이 묘소 앞에서 생각에 잠겼던 것 같다. 고인을 향해 넋두리를 하면서.

"선생님은 참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나도 이젠 그만 쉬어야 되겠소. 이 몸뚱이와 별리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언젠가 3.1절 기념행사에 구상 선생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다.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려는데 다리가 불편한 구 선생이 힘들어했다. 부축을 받아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본 나는 "선생님, 건강하셔야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구 선생은 "스님, 저는 지금 죽어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고 했다.

나는 그 소리가 참 좋았다. 당시 나는 스님이면서도 당장 죽는다면 억울할 게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구 선생은 나보다 20살쯤 많았고 건강도 안 좋았다. 나는 한창 젊을 때였다.

아직도 그때 그 말을 서예로 쓴 액자가 내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새기며 사는 말이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건 당신이 산 삶이 후회 없이 잘 살아왔다는 뜻이었다. 구 선생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다 갔다.



구상 시인이 잠든 천주교 공원묘지를 찾은 삼중 스님이 꽃을 꽂고 있다.

사형수가 시인 소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
종교는 서로가 달라도
교화활동 함께한 친구

구상 선생과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형수 이원식 씨 구명운동을 할 때였다. 이 씨는 나의 구명운동으로 감형되어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의 절친인 구 선생에게 나를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그때 나는 구 선생과 처음 만났고, 많은 나이 차이에도 서로 친구처럼 지냈다.

내가 재소자들을 위한 자선 전시회를 열면 구 선생은 빠지는 일 없이 모두 와줬다. 선생은 소장품을 내기도 했고 작품을 사주기도 했다. 동시에 재소자 교화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나를 도왔다.

사형수를 계기로 만난 인연은 또 다른 사형수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나는 한창 억울한 사형수들의 구명운동을 위해 진정서를 받으러 다녔다. 죄가 없어 반드시 집에 돌아갈 것이란 의미의 '필귀가(必歸家)'를 염주에 새긴 사형수가 있었다. 사형수 최재만 씨였다. 나는 최 씨 탄원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구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통은 일반 재소자가 아닌 사형수 탄원은 서명을 꺼리는데, 선생은 흔쾌히 마음을 냈다. 망설임 없이 서명한 구 선생이 고마웠다.

나는 구 선생이 당사자인 최 씨를 직접 만나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구 선생은 서울구치소에서 최 씨와 처음 만났다. 정중히 모자를 벗고 최 씨를 향해 합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형수인 최 씨를 부처님같이 대했다. 그 모습을 본 내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이 사람 양자 삼으시면 어떻습니까. 아드님 두 분도 앞서 갔는데…"

구 선생은 선천적으로 폐결핵을 앓았다.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어서 폐결핵 환자는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었다. 폐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구 선생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선생은 결혼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시집간 딸은 무탈했지만 같이 산 아들들은 아니었다. 선생은 자신의 병을 옮겨 아들 둘을 먼저 보냈다.

구상 선생은 사형수와 부자지간이 되라는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

"양아들로 삼으면 친자식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구 선생은 그렇게 사형수의 양아버지가 됐다. 부자의 연을 맺은 뒤로, 구 선생은 나와 함께 최 씨의 구명을 위해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다. 내가 더욱 선생을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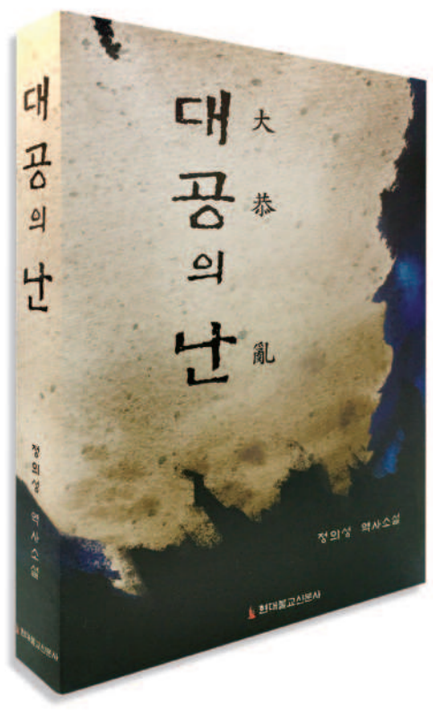
정리=김지원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